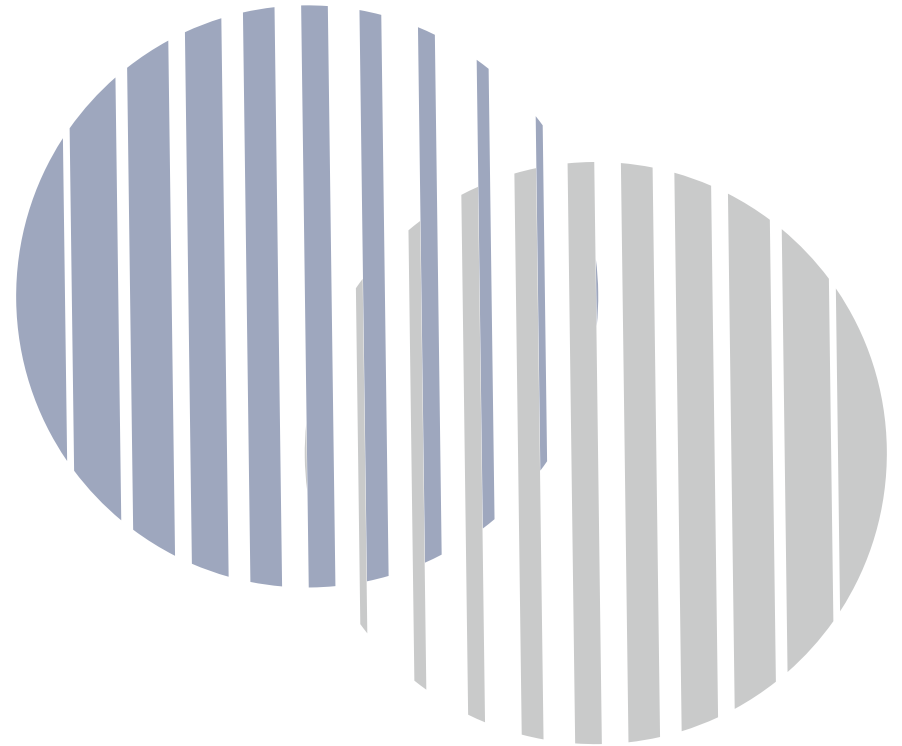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특강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특강

한완상·장달중·김주현·전현준·고수석·김재신 지음



명사. 名士.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 혹은 이름난 선비.

‘명사’에 관한 표준 국어대사전의 뜻풀이이다. 유명한 사람이라는 정의는 뭔가 부족한 느낌을 준다. 학식과 인품 등에서 세상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사표(師表)로 삼을 만한 사람이라는 정의는 어떨까? 더 쉽게는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제갈량처럼 무언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해법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명사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갖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보면 명사의 정의에 ‘드물다’라는 특징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올해 세상은 코로나19로 어지러웠다. 아직도 그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는 단지 보건의료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연히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였고 이에 남북 간 교류도 중단되었다.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전염병이라는 보건의료 문제까지 더

해져 한반도 상황은 더욱더 복잡해졌다. 이런 고차원의 방정식은 처음 인지라 당연히 기존의 방식이 아닌 창의적인 해법이 요구되었다. 이런 상황은 ‘명사’를 더욱 찾게 만들었고 그들의 해안을 필요로 하였다.

통일교육원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여러 명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제작하였다. 국민대학교에서 통일교육원과 함께 진행하는 ‘옴니버스 특강’에 좋은 분들이 강연을 해주었는데, 그 내용을 글로 묶어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다. 비대면 특강으로 진행되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강연을 듣지 못해 아쉬웠지만, 이번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나마 강연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아쉬움을 다 소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

학자, 외교관, 경제인,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선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고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책을 통해 3·1 운동과 평화통일의 관계, 통일외교와 공공외교,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한반도 평화유지, 통일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독일 통일의 교훈 등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통일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

우리는 그동안 선진국의 모델을 배워 적용하는 데 익숙해졌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K-방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고, 전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았다. 우리에게는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롭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DNA가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반도의 복잡한 상황을 타개하는 해법 역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20년 11월
통일교육원장

서문

금년은 민족 대단결의 3·1 운동 정신이 태동한 지 101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00년의 한반도 역사를 돌아해보면, 3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6·25 전쟁 발발 이후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남과 북은 치열한 체제 대립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과 화해무드라는 ‘뜨거운 얼음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방 이후 최초의 민족사학으로 출발한 국민대학은 ‘國利民福’의 실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國’, ‘民’ 대학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일제 치하의 굴욕을 두 번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선진국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일념하에 김구, 김규식, 조소앙, 신익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설립하였다. 이러한 숭고한 가치를 전개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통일운동의 정신’으로 계승하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및 문화 창출 운동’이라는 가치를 ‘한반도의 신평화 경제체제 구축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2020년의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구체해야 하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대학은 새로운 100년의 한반도를 이끌 인재들을 양성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던 중 통일부와 공동으로 후속 세대들에게 애국^{愛國}과 애민^{愛民}의 지혜와 경험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통일세대로 일컬어지는 대학생들이 평화와 통일 한반도에 대한 시각을 다각화하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각 전문 영역에서 통일에 대해 지식과 통찰력을 겸비하신 분들을 모시고 여섯 개의 시선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1강 · 관료의 시각으로 본 3·1 운동과 조국의 평화와 통일

과거 통일원(현재의 통일부) 장관 및 부총리를 역임했던 한완상 선생님께서 “3·1 운동과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독립운동’, ‘평화운동’, ‘통일운동’이라는 세 가지 운동이 성립될 수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윤리적 합의를 이루게 했던 실천 사례들을 말씀해주셨다. 특히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 그리고 우리 민족의 평화를 지향하는 민족성에 관한 여러 사례를 발굴하고 배움으로써 향후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하고 세계시민의 표본이 되는 평화 시민성을 발현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전수해주셨다.

2강 · 정치학자의 시각으로 본 통일외교와 공공외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인 장달중 선생님께서 “통일외교와 공

공외교를 위한 대학생들의 역할”을 주제로 현 상황에서 ‘통일외교’와 ‘공공외교’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국제질서 그리고 글로벌 협력의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주셨으며, 대학생들이 서양문명의 핵심 주장인 합리적 이성에 대한 독단적 논리성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3강 ·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의 통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김주현 박사님께서 그동안의 남북 교류협력의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과 우리의 과제”에 관한 내용을 들려주셨다. ‘한반도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21세기의 북한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통일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 해주셨으며, 생활습관 속에서 통일·평화 의식을 내재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과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중용^{中庸}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주셨다.

4강 · 북한학자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의 위기 구조와 평화 유지 방법론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30여 년간 북한·통일 연구에 전념해온 전현준 박사님께서 “한반도의 위기 구조와 평화 유지 전략”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셨다. 한반도의 분단 상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분단비용과 향후 통일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통일편익을 객관적으로 분석 해주셨는데,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와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 간의 대비를 통해 이성적 측면뿐 아니라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통일 한반도의 이익을 분석해주셨다.

5강 · 언론인의 시각에서 본 통일을 위한 과정과 변화

남북관계의 전문 기자로 활동하는 고수석 박사님께서 “통일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언론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 취사선택해야 하는 내용들을 구분하는 방법과 북한 기사를 접할 때 가져야 하는 선별능력에 대해 강의해주셨다. 또한 통일의식 고취 및 담론 확산을 위해 담당해야 하는 언론매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언론인들이 통일과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할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내재적·외재적인 입장과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주셨다.

6강 · 외교관의 시각에서 본 독일 통일의 교훈과 시사점

통일 이전 분단된 독일에 대한 이해와 함께 통일을 이룩한 독일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 김재신 前 주독 한국 대사님을 초청하여 “통일 독일 30년과 한국의 통일”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독일에서 통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쟁을 겪지 않았다는 점’, ‘주변국에서 통일 독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 그리고 ‘동서독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통일에 대해 찬성했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또한 본 강의에서 통일 전 서독에서 진행되었던 정치교육에서의 사회적 합의제도인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와 함께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토대로 세대와 계층들이 공감하는 ‘통일국민협약’을 마

련하여 통일공감대를 확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본 책자의 제작을 위해 우리 대학으로 한걸음에 달려오셔서 평화 한반도를 형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신 여섯 분의 강연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짐작하건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기성세대로서의 미안함과 그 과제들을 우리 후배 세대인 대학생들이 꼭 이루어달라는 간절한 바람에서 귀한 말씀들을 전수해주셨다고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열과 성을 다해 강연을 해주신 여섯 분의 실천 지성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사회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준 우리 대학의 여현철 교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통해 민족과 통일 한반도를 사랑하며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지성인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소망과 해법이 가득 채워지는 사회가 형성되기를 기대해본다.

2020년 11월
국민대학교 임홍재 총장

	책을 펴내며	004
	서문	007
1장	3·1 운동과 조국의 평화와 통일 — 한완상	
	억압과 분단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와 문화선진국으로	018
2장	통일외교와 공공외교를 위한 대학생들의 역할 — 장달중	
	통일외교와 공공외교의 주역이 될 20대	049
3장	한반도 통일과 우리의 과제 — 김주현	
	통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091
4장	한반도의 위기 구조와 평화 유지 전략 — 전현준	
	북한을 이해하면 평화통일의 길이 보인다	133
5장	통일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 고수석	
	통일 관점에서 북한을 알자	165
6장	통일 독일 30년과 한국의 통일 — 김재신	
	독일 통일 과정에서 배우는 한반도 통일 전략	191



대담자 한완상

前 부총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에모리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사회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제18대 통일원장관 겸 부총리, 제1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제24대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하였다. 《한반도는 아프다》, 《우아한 패배》, 《인간과 사회》, 《민족통합과 민족통일》 등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사회자 여현철

국민대학교 교수,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부원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동국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국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남북관계와 이산가족, 북한 사회 등의 분야에서 젊은 세대들을 공감시키는 학습방법의 적용을 통해 통일의식 고취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억압과 분단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와 문화선진국으로

한류의 뿌리는 독립운동가들의 삶이다

여현철 오늘은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한완상 전 부총리님을 모시고, '3·1 운동과 조국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을 사람들은 국민대학교 학생들과 평화, 통일을 주제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각 대학의 동아리 회장단들입니다.

한 전 부총리님은 작년에 대통령 직속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의 한반도를 설계하는 중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1년간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그간의 소회를 여쭙보겠습니다.

한완상 제가 대통령 직속 3·1 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민족은 너무나 억울하게도 강대국들의 여러 가지 억압과 통제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크게 감명을 받은 것은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1세기에 세계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100년 전 우리는 처절하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점을 당했던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 현재의 우리 세대와 후속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진실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연구 및 조사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것이 독립운동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살신성인의 삶을 살면서 투쟁하고 고생을 했기에, 그 희생의 결과물 위에 우리가 역사적인 아픔을 딛고 이렇게 문화강국으로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 BTS를 보면 한류문화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류문화는 서양의 국가들, 그리고 백인 청년들이 다다를 수 없는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1960년대 초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세계를 휩쓸었던 것이 비틀즈였습니다. 저도 그때 대학원 학생으로서 비틀즈의 음악을 접했습니다.

BTS는 비틀즈와 비견될 수 있는 정말 21세기적인 창조적 예술가들로, 세계의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

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더욱 대단한 것은 직접 자기들이 작사를 하고 때로는 작곡도 한다는 점입니다. 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사와 비트를 만들 때 그리고 그 음률과 내용, 분위기 등 전체적인 것들을 통찰할 수 있을 때 가장 살아있는 음악으로 탄생된다고 합니다. BTS는 이렇게 음악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그 음악과 음악에 담긴 메시지를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단계로 전환되는데, 이런 문화를 주도하고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 창조적인 토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현된다는 것이 더욱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노인이지만, 랩퍼로서의 BTS의 창조적인 끼를 보고 다양한 인종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격정적으로 BTS를 사랑한다고 외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BTS 공연, 촬영 현장 등도 다 볼 수 있습니다. BTS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대중음악 스타가 되고 히어로가 된 것은 배운 대로 달달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가사를 쓰고 멜로디도 자기들이 만들고 팬이 갖고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요.

3·1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현철 애국자들, 특히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어준 토대 위에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더욱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부총리님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대중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이유는 보편적인 가치들을 담아내서 인종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만인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완상 맞아요. 정말 어느 제도도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참여 예술이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한 수준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기원했을까요. 내가 이게 100주년 기념 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세기 말의 상황이 어떠했냐 하면, 유럽과 미국의 구미 패권주의가 세계를 아주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특히, 유럽 식민주의, 제국주의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나라들의 땅을 강점하고, 식민지로 삼아서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수탈, 문화적인 경멸을 하면서 그들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많은 것을 착취해갔습니다.

그때 동양에서는 이 백인 패권주의 못지않게 패권주의를 시행한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이기자 일본 제국주의는 대만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유럽 제국주의가 했던 행동보다 더 잔인하고 더 위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04년 러일전쟁이 터졌을 때,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를 강점했습니다.

여현철 위선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위선적이라는 것인지요?

한완상 ‘위선적’이라고 한 것은 일본이 말로는 동양 평화를 위해서 우리와 대만 등을 강점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에 제약이 있어 많은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못내 안타까운데요. 이 강점하는 과정에서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을사늑약(乙巳協約)이죠. 이 늑약 이후 5년이 지난 1910년 한일합방이 되는데, 한일 간 정식 조약을 통해서 병합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강점한 것이에요. 그리고 강점하고 나서도 우리 민족을 어떻게 다뤘느냐 하면, 유럽 사람들이 과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잔인하게 다스렸습니다.

여현철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완상 민간 경찰을 앞세워서 다스린 게 아니고 헌병과 경찰을 동시에 동원해서 다스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병은 군(軍)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군인들을 규율하는 역할인 것이죠. 따라서 헌병이 다스렸다는 것은 1910년 한일병탄 이후에 일본 당국은 우리 민족과 전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전시 상태와 같은 무단통치가 대략 9년 정도 이어졌고, 이러한 악행에 항의하기 위해 1919년 3월 1일에 벌어진 것이 우리 민족의 독립,

자주를 위한 3·1 운동이었죠.

여현철 1919년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계급과 지역과 종교와 세대를 초월해서 일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과 특징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한완상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나 하면 비폭력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전쟁을 하듯이 통제했던 일본 당국에 대해서 우리 시위자들은 기껏해야 태극기를 들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친 거죠. 평화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평화적인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루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잔인하게 다루었는지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게요. 그때 열일곱, 열여덟 살 먹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소녀는 3·1 운동이 일어나자 만세를 불렀고, 학교가 휴교가 되니까 태극기를 들고 자기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 아우내 장터에서 태극기를 나눠주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죄로 몰아서 잡아 가두어 가혹한 고문을 했고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일본 헌병들과 경찰은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총칼을 휘둘러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현철 당시 유관순 열사에 가해진 가혹행위에 대한 구체적·상황적인

내용들이 있었는지요?

한완상 유관순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시위, 만세시위, 평화시위를 한 것 때문에 잡혀가서 일본의 당국자들에 의해서 손톱이 뽑히는 아픔도 참을 수 있었다. 내 팔과 다리뼈가 꺾어지는 고통도 참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무력으로, 무단으로 강탈당하는 아픔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이 지금 내 슬픔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일본 사람들은 이화학당을 다녔던 학생인 한 소녀가 이렇게까지 고백할 만큼 처절한 고통을 주면서 한반도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유관순을 대표로 하는 젊은 세대는 그 당시 굉장한 수준에 이르렀죠. 그 당시 세계에는 어떤 풍조가 있었습니까? 1919년이 되기 얼마 전에 끝났던 제1차 세계대전은 그때까지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이 저질렀던 전쟁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들을 다 합쳐 약 3천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당시 서구에서는 과학기술 문명이 제일 발달되었는데, 그 고도로 발달된 기술력으로 최첨단 무기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나온 새로운 무기가 탱크였습니다. 기관총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는 얼마나 효율성이 높았겠습니까. 탱크가 만들어지고,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무찌르는 그런 괴력을 가진 부대가 생겼고

요. 그리고 소위 생화학 무기도 생겨나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현철 당시 3·1 운동 일어나기 전 상황에서 전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치렀고 영토 확장의 야욕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생겨났지요.

한완상 강대국들은 그저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땅따먹기 경쟁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그리고 1917년 러시아에서는 10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도 무고한 사람들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이제 그런 전쟁이라든지, 혁명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정말 진절머리를 낼 때 3·1 운동이 터졌습니다.

일본 관원에 의해서 총칼로 찢리고, 맞고, 죽고, 어떤 교회는 몽땅 불타서 제암리 교회 같은 사례는 정말 아우슈비츠에 못지 않게 처참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무슨 몽둥이를 들거나 식칼을 들거나 낫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 그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평화적인 시위를 했죠.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전 세계는 새로운 눈으로 우리 한반도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3.1 운동의 평화 시위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여현철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 두 달 정도 뒤인 5월 4일에 북경대학교 학생들이 그 소식을 접한 여파로 5·4 반제국주의 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총리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요?

한완상 당시는 지금처럼 무슨 SNS도 없고, 이렇게 매스 커뮤니케이션들이 발달이 안 되었을 때인데도 5·4 반제국주의 운동이 터집니다. 북경대학 학생들이 중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또 의식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본인들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을 본받겠다고 해서 5·4 반제국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당시 한반도에서 한국 사람들이 계급과 세대와 종교 등 차이를 불문하고 총체적으로 쫓기하여 비폭력으로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한민족이 대단한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경대학 학생들은 ‘우리가 부끄럽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일본은 임진왜란 때부터 한반도를 다리 삼아서 중국 대륙을 침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한 것은 한반도만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교량으로 해서 중국을 먹으려고 하는 것임을 중국 대학생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교량 역할을 하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용기 있게 비폭력이고 평화적으로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감

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북경대학 학생들이 부끄러움을 참회하기 위해 시위하면서 오체투지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체투지란 말을 아시나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자신을 가장 낮추어 참회 수행하는 방식으로 온몸을 땅으로 던집니다. 오체, 온몸을 땅에 대고 팔과 다리를 길게 뻗어서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한 발짝 가서 또 땅에 엎드리는 고행이죠. 그 고행 시위를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3·1 운동의 울림은 감동적이었고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인도에 있었던 영국 식민주의, 제국주의에 대해 비폭력 저항운동에 앞장섰던 간디와 그 주변 사람들도 3·1 운동 이야기를 듣고 ‘이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전 국민이 저렇게 나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의 비폭력 운동가인 간디는 소수 중에서도 소수였습니다. 홀로 투쟁하는 것이 정말 외로웠을 텐데, 한반도에서는 전 민족과 계층이 들고 일어났다니 그 상황이 정말 경천동지할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여현철 간디와 간디의 수제자 네루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존경하고, 그들의 선행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개해주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한완상 간디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네루였어요. 네루는 대단한 지식인이자 통찰력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네루가 반영국제국

주의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그 딸이 유관순 나이였어요. 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묶어서 《세계사 편력》이라는 세 권이 책이 나왔지요. 그 2권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1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났는데, 네 나이 또래에 학교 다니는 소녀도 이 일본의 잔인한 제국주의 강점, 총체적 억압 수탈 정책에 맞서서 비폭력으로 싸웠다. 너도 그 사실을 알면 감동할 것이다.” 이런 글을 쓸 만큼 감동이 컸던 것이죠.

월남(베트남)에서는 민족적 영웅이자 월남의 지도자였던 호치민이 그때 20대 초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을 수습하는 1919년 파리강화회의 때, 우리나라의 김규식 박사가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 만든 ‘신한청년단’의 이름으로 한국 대표가 되어서 거기서 월남에서 온 청년을 만났습니다. 월남 청년이 파리강화회의에 온 것은 당시 월남도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식민 종주국의 수도에 가서 이제 자기도 반 제국주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규식 박사를 만나서 3·1 운동 이야기도 듣고, 김규식 박사의 넓은 역사의식과 세계가 돌아가는 동향도 듣게 됩니다. 이후 매일 스승을 대하듯이 만나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호치민을 감시했던 프랑스 경찰들의 보고서가 추후에 나오게 됨에 따라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졌습니다. 3·1 운동이 호치민에게도 큰 감동을 준 것이죠.

여현철 한반도 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국리민복을 위한 헌신적인 자세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그들의 노력에 고개가 숙여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매번 안타깝습니다.

한완상 그럼 또 다른 감동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3·1 운동이 터지자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 여기 이곳, 이 학교를 창설하시다시피한 해공 신익희 선생을 비롯하여 그야말로 독립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찾고자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상해에 모여 임시 망명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임시 망명정부를 만든 게 3·1 운동이 일어난 지 불과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임시정부의 정치 정강의 핵심은 무엇인가? 소위 국시가 무엇인가? 지표가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그 지표를 민주공화제라고 결정했습니다. 민주공화제!

여현철 상해 임시 정부가 1919년 4월 초에 결정한 민주공화제라는 국가의 아이덴티티, 그 국체(國體)가 지금의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된 것이군요. 이름만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너무나 감격적인 상황에서의 탄생입니다.

한반도는 어떻게 분단되었는가

한완상 이제 내가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난 100년간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1910년 이후 35년간은 일본으로부터 총체적인 억압, 수탈, 능멸, 차별을 받았던 아픔,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당했다가 1945년 8월 중순에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가 소위 해방이 됐다, 광복이 됐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식인의 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해방된 적이 없어요. 진짜 해방 그리고 광복이라 하면 우리 민족의 강토가 쪼개지지 않고 분단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복지와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지 그것이 참 해방이고 광복입니다. 지금처럼 두 쪽 난 상황은 안 돼요.

여현철 남과 북의 대결과 갈등 그리고 외세의 개입으로 분단이 이루어졌음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 그리고 외세에 의한 간섭에 따른 분단에 대해 부총리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한완상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은 히틀러가 사망한 1945년 5월이었습니다. 5월 중순에 유럽 전쟁은 끝났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아직 태평양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

으니까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소련 지도자인 스탈린에게 ‘태평양 전장에도 당신들이 참전해라,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결국 안 했습니다. 소련의 피해를 생각하고, 또 소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스탈린은 결심을 못했어요. 그런데 1945년 해방되기 꼭 한 달 전쯤 보스턴에서 회담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선임자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망으로 새로 대통령이 된 미국의 트루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켰어요. 태평양전쟁을 종결시켜야 하는데 떠나기 전날, 뉴멕시코에서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고 기분 좋게 떠나요. ‘아 이제 우리가 원자폭탄을 가졌으니까 이 전쟁을 끝내는 거는 뭐 우리 손에 달렸다, 소련에게 자꾸 당신들도 참여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포츠담에 가서 3주간 긴 정상회담을 했는데, 트루먼은 소련에게 태평양전쟁에 참여해 달라는 말을 공식으로 안 했어요. 하지만 넌지시 이야기를 흘렸다고 합니다.

회담이 끝나고 며칠 안 되어, 정확히 말하면 8월 6일이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져서 한 방으로 1~2초 안에 10만 명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스탈린은 그 보고를 받고 ‘아, 이제 내가 참전해도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왜? 전쟁은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지기 전날 소련은 태평양전쟁에 참여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소련과 만주국 경계선에 있던 소련 육군을 대거 남하를 시키는데 남하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미국이 이미 핵폭탄을 썼고

일본 군대는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서 소련군이 쳐들어오면 항복하기 바빴어요.

여현철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유와 38선으로 그어진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완상 소련군은 불과 며칠 사이에 한반도에 도착했습니다. 이걸 보고 미국 정부가 걱정하게 되었죠.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하고는 잘 싸웠지만 태평양전쟁에는 별로 희생한 게 없었죠. 이에 비해 미국은 희생을 많이 했거든요. 미국 정부에서는 태평양전쟁에서 '저 사람들이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일본 본토를 먹겠구나' 하는 염려가 생겼죠. 소련이 한반도에 다 내려오기 전, 더 밑으로 내려오기 전에 어디서 차단해야 하는데 그걸 어디서 차단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여현철 네. 38선이 그어진 이유에 대한 주장은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38선이 미국의 군사적 목적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가드너(미 해군 부제독), 찰스 본스틸(미 육군부 작전국 정책과장), 딘 러스크 이상 세 사람에게 의한 '38선 분획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38선 포츠담 밀약' 설이 있습니다. 즉, 미소 간의 충돌과 큰 이견이 없이 38선을 경계로 우리 한반도를 분할하여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전에

밀약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완상 나는 첫 번째 주장에 동의해요. 당시 미국 국방성에서는 제일 똑똑한 대령 셋을 뽑아서 그들에게 아주 급박하게 소련군이 더 남쪽으로 내려올 수 없는 선을 찾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때 뽑힌 대령 세 명이 방금 말씀하셨던, 모두 역사에 남은 사람입니다. 딘 러스크라고 케네디 대통령 때 국무장관을 한 사람과 본스틸이라고 8군 사령관을 한 사람, 마지막으로 가드너라고 하는 대령이었습니다.

군인들 가운데 제일 똑똑하고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동량이 될 만한 사람들은 옥스포드에서 로즈 장학금을 줘요. 로즈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고 오면 미국에서는 매우 큰 거물 장군이 된 다든지, 정치인이 되는 거지요. 근데 로즈 장학생으로 뽑힌 이들 대령이 제일 똑똑할 것이라고 보고 빨리 선을 찾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기막힌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긴급 명령을 받고 상황실에 가서 벽에 걸린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를 보니까 한반도 중간쯤에 38선이 지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 보고 불과 몇 분 만에 '여기서 끊으면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게 채택됨으로써 한반도는 두 동강이 난 거예요.

통일과 민주화 운동으로 살아가는 독립운동 정신

여현철 부총리님이 작년 3·1 운동 기념 사업회를 이끌어주시면서 과거의 10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통일 준비와 통일 한반도에서의 100년을 설계하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완상 한반도의 분단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35년간의 일본 강점 고통보다 더 기간도 길어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현재 우리가 분단이 된 지 75년째이지요? 75년이 되니까 35년의 두 배가 넘네요. 기간도 그렇지만 당시의 분단 고통이 굉장히 심했지요. 그 이유는 광복된 지 얼마 안 돼서 분단이 되면 민족상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던 백범 선생이나 부주석이었던 김규식 박사, 이런 어른들과 그전에 돌아가신 몽양 여운형 선생 같은 분들이 한반도에서의 분단을 막기 위해 남북간 대화를 추진합니다.

1948년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치지도자회의에도 가고, 남쪽에서 그때 참석하기 위해 가려고 하면, 빨갱이들이라고 막을 한 사람들, 극우들이 많았지만 하여튼 갑니다. 그렇지만 실패하고 돌아오죠. 몽양은 총을 맞고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남쪽에서라도 좌우 합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했지만 양쪽 모두에게 협공을 당하고 결국 자객의 총탄에 의해 돌아가셨지요.

해공 신익희 선생도 처음에는 이승만 밑에서 일을 했어요. 나

는 왜 해공이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보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 밑에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따로 대통령 후보로 나왔지요. 당시 저는 나이가 많지는 않았고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해보면 한강변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 당시는 교통도 좋지 않을 때인데 10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명이 모인 것과 마찬가지로요. 해공도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아무튼 이 분단의 고통을 이겨내려고 했던 사람들의 핵심은 3·1 운동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임시 정부의 핵심 리더들이었습니다.

여현철 독립 이후 민족이 분단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안 독립운동가들이 통합을 위해 부단히 애썼다는 사실을 후학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무가 기성세대들에게 더욱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연령이 어린 학생들도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제일 먼저 김구 선생님을 떠올리는데, 부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백범 선생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완상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의해 분단되고 나면, 민족상잔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미 김구 선생님은 예견하셨어요. 학자로서의 얘기는 아니지만 김구 선생은 참 기묘하게도 6·25 전쟁이 터지기 꼭 1년 전, 364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1년만 더 사셨으면 전쟁을 막는 데 더 힘을 보태서 정말로 막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

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전쟁 이후 김규식 박사처럼 납치되어 가셨을 수도 있겠지요. 김규식 박사는 만주와 북한 경계선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어른들은 38선이 그어지게 되면 민족이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로 나가게 되기 쉽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은 38선 이남 지역에 단독정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38선 이북 지역에 그 다음 달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요. 그래서 한민족이 5천년 동안 같은 풍속, 같은 문화, 같음으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는 같은 이 겨레, 이 동포가 두 적대적인 국가로 출범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 분단은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왜? 분단이 극복되지 않으면 해방도 광복도 없으니까요.

지금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살아계시고 해공 선생님이 살아계신다면 가슴을 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두 동강이 났고 게다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적대관계에서 분열이 됐기 때문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6·25 전쟁 3년 후에 평화적으로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총 쏘는 행동만 중지시킨 거예요. 정전, 전쟁을 일시 중단한 것이지,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로 넘어가지 않았습시다.

누가 분단 고착화 세력이고 누가 민족 통합 세력인가

여현철 당시 휴전 협정을 체결하고, 다시 추후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한완상 사실은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 평화협정을 위해서 3개월 후에 파리에서 정치협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분단되고 나니까 평양과 서울에 있는 정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분단되고 나서 반쪽 난 그 덩어리 안에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전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이 고착되면서부터 남북 간의 관계는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악화된 그 하나만을 가지고 제가 분석한 이론은 분단이 고착화되면 될수록 정치적 이득을 보는 세력들은 북쪽이나 남쪽에서 지배세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단 이후에 독립운동은 어떤 운동으로 이어졌을까요? 민주화운동, 평화운동, 인권운동, 환경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여러 가지 운동, 시민사회운동 등은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해서 분열되기 이전의 민족 통합적인 입장에서 공동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등한 선진 정치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1919년 4월 임시정부는 국체, 즉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조선 봉건사회로 정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체제를 수복한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제로 정했습니다.

민주공화제에 대해 현재까지 제일 많이 알려진 게 교과서적으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없애버린 바이마르 공화국인데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우리도 많이 참조했죠. 그런데 바이마르 공화국보다도 4개월 혹은 6개월 앞서서 우리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선진적입니까. 그리고 3·1 운동을 위시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 대해서 그 무단 폭력적인 총칼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평화적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최남선 씨가 쓴 독립선언서를 보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1955년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을 칠 때, 국어시험에 3·1 운동에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해석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어려워서 잘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모든 학자들을 동원해서 최남선 씨가 쓴 것을 국민들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중학교 1, 2학년만 되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것 하나 읽어드리죠.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동안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은 빛을 인류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뽕뽕 언 얼음과 차디 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인 일본 제국주의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별의 기운이 도는 새 시대가 오는

구나.”

어때요?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이해하기 쉽죠? 이 선언문을 쓰고 독립운동을 했던 3·1 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선배들은 분단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 제국주의만 끝나고, 우리가 독립만 하면 자유와 평등, 평화와 복지, 너그러움과 관용, 이것이 다 제도가 돼서 정말 선진 민주 복지번영 국가로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북 간 분단이 고착되면서 소위 말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 강조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현철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면 우리의 적대국이 있어야 현재의 지위를 누릴 수 있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요.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인지요?

한완상 적대적 공생관계가 무엇인가 하면, 남이나 북은 지난 70년간 서로 상대방을 악마화했습니다. 북쪽은 우리를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형편없는 타락한 사람으로 보고, 우리는 저쪽을 북괴, 귀신처럼 여기고 자의도 없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서로 욕을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남북 당국이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악마화

했지요. 그런데 참 요상하게도 이 두 적대적인 지배집단은 상대방의 호전성을 비난하고 욕을 하며 비판하면서도 이런 호전성이 있어야만 자기 체제를 다스려나갈 수 있게 되었던 말이에요.

여러분 이승만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남쪽 지배자들은 위기가 생기면 북한이 침공한다, 북한이 위협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거기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색깔을 칠해서 반체제 인사로 몰고 학생 운동 같은 것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 감옥에 보내고 했던 말이에요. 상대방의 극악한 통치체제를 비난해야만 자기 체제를 단합해나가고 자기의 정치 기득권과 경제적인 기득권을 보호 강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북한도 위기에 빠지면 미 제국주의가 남쪽을 통해서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적대관계가 서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왜? 남이나 북이나 이를 활용해서 기득권을 강화하고 장기집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를 끝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현철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가 명확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없앨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한완상 우리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적대적 공생관계가 강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남북문제나 평화문제가

아니더라도 인권문제라든지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동한 사람도 색깔질을 당하는 대상이 됩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집어넣어 가지고 고생시키고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비극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분단이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킨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도 다 색깔질을 당해서 통제를 당하면서 고통을 겪은 것이죠. 인권운동을 했던 지식인들도 그 사람들이 무슨 빨갱이가 아닌데도 그렇게 색깔질을 당해서 고통을 겪었죠.

여현철 부총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색깔질'을 당한 경험, 피해 사례가 있으신지요?

한완상 저는 서울대학교를 2번이나 쫓겨난 경력이 있고요. 또 미국 망명까지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그 아픔이 있어요. 사실 저는 진보적인 평화주의자죠. 저는 공산주의나 특히 전체주의 공산주의에 치를 떨고 반대합니다. 마치 극우인 무솔리니나 히틀러를 반대하듯이 스탈린도 반대하는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저는 딱지가 붙은 사람이었어요. 정부에 있을 때도 그 딱지 때문에 고통을 많이 했고요.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도 어디 가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그 통일부, 통일원 부총리 하실 때 왜 이인모 같은 빨갱이를 북한의 가족 품으로 보냈습니까?" 그러나 그 질문에 저는 아무런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적대적 공생 관계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야 여기서 뭐 한 자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한 분노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다만 슬프지요. 끝없이 슬퍼요. “손톱이 빠지는 아픔도 참을 수 있고, 팔과 다리의 뼈가 꺾이는 고통도 나는 참을 수 있지만, 나라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빼앗긴 아픔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유관순 소녀의 그 아픔이 제 아픔인 거예요. 이 아픔이 없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전체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역병을 치르고 있어요. 지난날의 선진국이 역경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후진국입니다. 아까 내가 문화 창작 능력에 있어서 BTS를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역경을 이기는 일에서도 공동체적으로 잘합니다. 자유를 주면서 혹시 역학조사 대상이 되면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있는 그대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야말로 민주 국가로서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이 역병 퇴치에 새로운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래는 노래대로, 방역은 방역대로 평가를 받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백범 김구 선생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우리가 해방이 된 것을 보고 기뻐함과 동시에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걱정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단이 되고 나면 민족상잔이 생기겠다는 두려움이 생긴 거 같

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단 극복, 그리고 평화실현, 그 기초 위에 번영 국가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헤어졌던, 두 조각 난 땅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세계 첨단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고 있고 그걸 증명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을 보라. 저 사람들은 BTS 같은 젊은 애들이 노래를 감동적으로 부르는 것 이상으로 정치도 그렇게 하고 경제도 그렇게 하는구나, 문화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사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 정신, 3·1 운동 정신, 이것이 분단극복 정신, 평화 정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현철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대학생들에게 추가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한완상 요즘 대학생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은 통일을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통일을 꼭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주제로 부탁을 받으면 꼭 이 말을 해드렸습니다. 결혼 전에는 ‘~ 때문에’라는 측면에서 많이 접근합니다. 직업이 괜찮기 때문에, 인물이, 집안이 좋기 때문에 등으로 얘기를 하고요. 결혼 후에는 ‘~불구하고’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험을 못 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못해서 다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는 한반도의
존립과 민족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에도 불구하
고, 우리는 민족이기 때문에...'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서 큰 공부를 하시는 대학생^{大學生}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특강





통일외교와 공공외교의 주역이 될 20대

대담자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북미 대립》, 《현대 북한학 강의》 등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여현철 오늘은 특별한 분들 중 더욱 특별한 분과 함께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치학, 특히 통일과 북한문제의 거두이신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달중 오늘 여러분들께 ‘통일외교와 공공외교를 위한 대학생들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있다가 은퇴한 지 7년이 됐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최근에 세상이 많이 변했고, 그 변

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그동안 우리의 통일외교와 공공외교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설명한 다음, 앞으로 통일외교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의 향방

여현철 우리의 통일외교와 공공외교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의 국제정치체제, 국제사회의 질서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우리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장달중 우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었던 국제정치질서에 근본적인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탈냉전 이후의 세계화에 의해서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교류가 세계질서를 유지해왔습니다. 기존의 세계질서에 종말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여 UN이나, 마셜플랜(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에 대한 미국의 경제 부흥 계획) 등을 통해 전후 세계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던 노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현실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질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그동안 국제질서를 리드해왔던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협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메르스라든가 사스가 있을 때는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세계질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와 비교됩니다. 1947년, 미국은 마셜플랜을 통해서 유럽의 경제 회복, 민주주의 회복을 시도했고 또 나토^{NATO}라든가 UN을 창설하여 자유형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적 질서를 수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냉전시대에는 소련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의 적이 있으니까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왔는데 탈냉전이 되니까 적이 사라져버렸어요. 적이 사라지고 나니 미국이 뭘 할지에 대한 방향감을 상실했어요. 그렇게 방향감을 상실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국가 개입을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점점 돈을 더 벌고, 빈곤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등 경제 격차가 확대됩니다.

의회민주주의, 서구 자본주의를 지탱해온 중산층이 몰락하고 불평등이 확대되니 이런 정치현실을 이용하려는 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퓰리즘(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 대중영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치를 휩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영국도, 민주화가 된 동유럽도, 남미도 그렇습니다. 포퓰리즘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이와 같은 포퓰리즘적 정치의 등장 결과로 그동안 시장자본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었던 토론과 타협을 통한 합의의 민주제가 사라지고, 배타적인 자국중심주의 민족주의적 정치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인데 상당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국제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해왔던 정치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현철 국제사회에서 미국 주도의 리더십 약화와 글로벌 협력의 약화가 큰 문제이며, 탈냉전 이후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와 그 반작용으로의 포퓰리즘의 만연, 자국 우선주의와 민족주의의 확대,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었겠죠?

장달중 여러분들은 몇 년생인가요? 1996년생, 1997년생 정도인 거죠?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우리나라에 IMF 외환위기가 왔어요.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IMF 때 겪었던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암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약값이 미화로 3만 달러였어요. 그런데 IMF가 오니까 환율 변동으로 3천만 원짜리 약값이 6천만 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우리나라는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어려웠지만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다 경기가 괜찮았던 말이에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잘 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우리만 나쁜 것이 아니라 미국도 나쁘고 일본도 나쁘고 유럽도 나쁘고 다 나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국의 국내 정치적인 질서의 흔들림이 국제정치 질서의 동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현철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냉철한 지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의 국제정치 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한국이 통일 외교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달중 단기 대책으로 국가마다 공적자금을 투입합니다. 저도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또 기업에 구제 금융을 투입하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문제는 받아쓰는 사람은 좋은데 국가 재정이 바닥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급박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아주 커집니다.

그동안 급속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사회의 활동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국제 수준의 연대가 강화되고 기후라든가 보건이라든가 문화적 교류라든가 K-Pop이라든가 할 거 없이 이런 교류가 활성화되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코로나로 인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민족주의 흐름이 아주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단기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현철 국가 주도적인 정책은 대개의 경우 국제적인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과거의 일부 폐쇄국가에서만 보이던 양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되는 모양새인데요.

장달중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아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이겨내야 하는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사실 공동으로 협력해서 대응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를 보면 국제적인 협력이 아주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중기적으로 어떻게 될

까요? 미국의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의장이자 제 지인이기도 한 리처드 하스라는 분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모습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도까지 있었는데 1918년에 파리에서 강화조약을 해서 독일에 아주 무거운 배상책임을 물리고 국제연맹을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한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우드로 윌슨(미국의 28대 대통령, 1913~1921년 재임)이라는 대통령이 주도했는데 가입을 못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가입을 부결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경제대공황이 일어나서 모든 국가가 민족주의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실시하니까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린 공핍화 정책’, 상대를 가난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잘살고자 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솔리니, 히틀러, 일본 군국주의의 등장입니다. 말하자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잠시 등장했던 민주주의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제질서가 이런 상태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스 미국의외교협회 회장이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는 조금 다를 것 같고, 그때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UN 같은 국제기구가 그런대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UN 같은 국제기구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때와는 다르게 전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핵무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핵무기는 전쟁하면 다 죽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핵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큰소리를 뽕뽕 쳐도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한 세계에서 국가를 초월한 개인들 간의 네트워크인 시민단체가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났던 파시즘이나 나치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1차 세계대전과 같진 않지만 과거 우리가 겪었던 ‘콜드 워 Cold War’, 즉 냉전하고는 다른 형태의 전쟁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콜드 워가 아니라 ‘쿨 워 Cool War’, 즉 시원한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콜드 워가 아니라 쿨 워의 세계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는 것이지요.

여현철 국제기구의 역할과 핵무기의 전쟁억제력, 개인 간 네트워크의 확산이 과거와 같은 열전을 방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콜드 워는 저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쿨 워는 어떤 개념일까요?

장달중 우선 콜드 워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콜드 워는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대립이었

습니다. 상대방이 저야 우리가 이기는, 즉 한쪽이 망하고 한쪽이 이기는 제로섬 게임이 냉전이었어요. 미소 냉전이 본격화된 사건은 한국전쟁입니다.

1948년에 그 유명한 조지 캐닌(‘소련 봉쇄’ 정책 주장, 냉전의 설계자)이라는 미국 외교관이 외교가에 등장했습니다. 그 당시엔 소련인 러시아에 주재한 외교관이었는데 외교관계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인 <포린 어페어스>에 미스터 엑스라는 필명으로 글을 써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소련의 팽창주의 이데올로기는 결국 전 세계 공산화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세력 팽창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수립한 외교정책)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봉쇄정책을 내세웠는데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냉전이 세계무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럽의 냉전은 유럽을 누가 장악하느냐를 두고 미소가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나면서 냉전은 아시아로 확대되었고 냉전이 세계화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을 미소 간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 싸움보다 더 위협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의 존재라든가 국제화된 세계인의 습속에서 냉전 때보다는 덜한 제로섬 게임 대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적 대결이 지배적이 되는 쿨 워, 쿨한 전쟁이 앞으로 재개되지 않을까요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콜드 워와 쿨 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쉽게 설명하자면 콜드

위는 제로섬적인 대결이고, 쿨 위는 상호 의존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대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대국 미중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모순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중국 전체 무역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 쉽게 단절하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기독교 가치관과 유교 문화적 가치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그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인적으로나 국제적인 면에서 너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싸움을 해도 쉽게 풀기가 어려운 상황, 상호 의존적인 상황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호 의존적인 상황이 깨지면 파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스란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파멸로 가기에는 핵이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현철 한쪽 상대가 패배할 때까지 폭주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 상대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경쟁이 쿨 위의 개념이 되겠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상호 의존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극한대립 방지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유지될까요? 현재와 같이 자국 중심적, 민족주의적 정책기조가 만연하게 된다면 상호 의존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장달중 상호 의존성이란 말은 상당히 중요한 국제정치 개념인데 간단

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서로 협력하고 좋은데 이게 깨지면 파국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녀가 결혼해서 살면 부부간의 상호 의존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깨지면 이혼입니다. 이 상호 의존성이 높은 건 참 좋은데 잘못 관리하면 바로 파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려면 미국이나 중국의 리더십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와 시진핑 둘 다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통일을 위한 외교와 공공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통일외교와 공공외교를 일단 살펴보고 여기에서 얻는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파워가 국제정치를 움직인다

여현철 상호 의존성을 지키고 신장하는 방법으로서, 말하자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하며 상호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의 외교, 특히 공공외교의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장달중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대개 다섯 가지 정도로 꼽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

일까요? 첫 번째는 군비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체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군축회담을 해서 여러 번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깨버렸지 않습니까?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도 깨버릴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군축은 역사적으로도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UN이 하고 있는 집단안전보장 체제입니다. 집단안전보장 체제라고 하는 것은 침략국에 대해서 연합군이 막강한 힘으로 침략을 격퇴하는 것입니다. UN이 그렇게 합니다. UN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때 UN의 집단안전보장 체제에 의해 참여했습니다. 이런 집단안전보장 체제로 인해서 지금 전후 질서가 비교적 잘 유지되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는 세계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계 전체가 하나의 국가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것은 꿈같은 얘기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남은 게 뭘까요? 외교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인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분쟁을 해결하고 국가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력과 수용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외교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이념을 내세우는 전쟁 같은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면, 레이건이 미국 대통

령에 당선되면서 앞으로 소련을 악의 국가라고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이것보다 더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아무리 나쁜 국가라도 서로 상대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서 서로 타협하고 경쟁하면서 전후질서를 유지해왔는데, 레이건이 소련은 악의 국가다, 소련은 무너져야 할 국가다, 없애야 할 국가다, 이렇게 규정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이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외교에서는 이와 같은 이념적인·이데올로기적인 절대 선을 추구하는 그런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화배우 출신의 레이건 대통령은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아주 실용적인 참모들(국무장관, 국방장관)로 하여금 실제로는 소련하고 교섭하도록 해서 결국은 소련의 공산주의 장벽이 무너지는 토대를 마련했던 말이에요. 이렇게 외교를 통해 국제정치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현철 국제정치에서 이념적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 그 대안으로 상호 주권을 인정하면서 경쟁하는 방법으로 외교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제정치질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장달중 우선 국제정치질서를 보는 세 가지 시각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냉전시대에는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를 제로섬 게임 시각에서 봤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북한에게 나쁘고 북한에

좋은 건 우리에게 나쁘니까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국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억제와 징벌을 도모하는 ‘현실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주의적 시각을 지닌 정치인으로는 헨리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 미국의 정치가이자 정치학자, 前 국무장관)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무정부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 힘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타협을 통해 크게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세력균형을 통해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키신저 같은 사람이 하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키신저는 1815년 빈 체제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혁명적 열기가 유럽을 뒤덮고 있을 때 보수적인 군주들이 모여서 빈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만든 보수적인 국제체제인 빈 체제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날 때까지 약 100년 동안 유지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평화의 시기예요.

역사책을 읽어보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오더군요.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바람에 회의가 안 되니까 메테르니히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재상이 탈레랑이라는 프랑스의 외무부장관에게 부탁을 해서 프랑스 최고 와인으로 회의 참가자들을 접대했습니다. 매일 밤 와인을 마시며 댄스파티를 열었어요. 회의를 하지 않고 댄스파티만 하고 술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는

춤춘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되었죠. 그 유명한 와인과 댄스파티의 결과로 빈 체제가 만들어지고 100년간 유럽의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빈 체제에서 얻은 교훈은 서로 이익이 다른 국가들 간에 갈등을 완화시키는 기제로서 와인과 댄스파티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 체제가 이루어졌는데 이 빈 체제가 결국 무너지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주의적인 시각이 제일 강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강하고, 이게 또 국제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자유주의적 시각은 개인의 자유나 재산권 같은 것을 중시하는 상호 의존성의 국제질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각 국가 간의 경제적 교류나 문화적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의존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전쟁은 안 일어날 거라는 시각이지요. 그런데 탈냉전 이후에 구성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제정치학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시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냉전체제가 무너진 이유를 현실주의 시각도, 자유주의 시각도 전혀 설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키신저 같은 사람은 아시아에서 조그마한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베트남전쟁, 한국전쟁은 상관 없어요. 이것이 중국하고 미국의 싸움으로 번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신저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북핵을 양

보 받는 대신에 중국의 북한 지배권을 인정해줘야 한다.” 큰 나라끼리 전쟁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4~5년 전에 칼럼을 썼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국제 자문단을 형성하면서 키신저라는 사람을 초청한다고 해서 제가 반대하는 글을 <중앙일보>에 칼럼으로 썼습니다. “키신저 같은 사람은 절대 초청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지 연구하고 이것만 막으려고 하는데, 한국에 막상 오면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냉전이 무너진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찌겠습니까. 정보통신 교류, 인적 교류, 문화 교류 이런 것 때문에 해결,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전체주의의 기원》이란 책을 썼어요. 처음에 “전체주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썼다가 나중에 헝가리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전체주의 사회도 정보나 자본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바꾸었어요. 냉전의 해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흐름에서 나왔는데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각이 구성주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인데 구성주의 시각은 쉽게 얘기하면 영국도 핵을 가지고,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북한 핵만 위험하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이예요. 그것은 상대방의 실체,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은 우방이기 때문에 별

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현실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신념에 의해서 국제정치를 보는 시각인데 이 구성주의 시각에서는 9·11 테러나 냉전의 종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군사력이나 경제력만 가지고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상대 국가의 정체성, 실체를 어떻게 상호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국제정치를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냉전의 종식 과정을 보니까 ‘하드 파워’, 즉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왜 무너졌는지를 보니까 이제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만 가지고 국제정치가 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현철 국제정치의 주요한 세 가지 시각,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적 시각에 대해 정말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의 질서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탈냉전 이후 도래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경성권력,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외에 국제정치에서 통용되는 또 다른 힘이 있을까요?

장달중 여기에 적합한 말이 ‘소프트파워^{soft power}’입니다. 소프트파워는 국제정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 강제나 위협, 물질적 보상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하는 얘기입니다. 이 용어를 대중화 시킨 사람이 하버드대의 조셉 나이^{Joseph Nye} 교수라는 사람인데 소프트파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매력적인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의 K-Pop 같은 것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매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용준이라는 배우를 예로 들까 합니다. 배용준이 일본에서 <겨울연가>로 히트 칠 무렵 제가 일본 방문 중에 뉴오타이라는 호텔에 묵었어요. 아침에 나가려는데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편으로 가서 봤더니 배용준이 그 꼭대기 층에 묵었대요. 배용준을 보려고 2,000여 명의 여성들이 호텔 앞을 가득 메운 거예요. 배용준이 도착했을 때 비틀즈가 왔을 때보다 더 많이 보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교토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초청했을 때 가서 강연을 들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오사카 공항에 내렸더니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환영하러 나와 있기에 자기를 환영하러 나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겨울연가>의 다른 남자 배우인 박용하를 환영하는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이런 문화적인 매력은 당시 <겨울연가> 광풍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드라마 때문에 한일 관계가 바뀔 정도로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나라가 모범을 삼을 수 있는 가치나 제도입니

다. 우리가 영미식 민주주의를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정당하고 도덕적인 외교정책이나 경제정책 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고요. 오늘날 이런 문화정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냉전 역사의 종언’이라는 용어를 쓴 프란시스 후쿠야마에 의하면 덴마크가 가장 앞선 나라라고 합니다. 덴마크는 가장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부패가 없고 공정한 사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건설회사 사장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덴마크에서 수도 공사 입찰을 들어갔는데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덴마크 정부에서 6개월 뒤에 하자고 일정을 미뤘답니다. 그런데 6개월 연기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30년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하더군요.

한국 외교정책 패턴의 변화

여현철 소프트파워는 국가가 가지는 매력과 모범적인 가치나 제도, 정당하고 도덕적인 외교정책이나 경제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견 이상주의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소프트파워가 우리나라 외교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나요?

장달중 이제 탈냉전과 더불어 경제력이나 군사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에게도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증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도 대북정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공외교가 등장하고 소프트파워 중심의 외교정책을 시작합니다.

세계정세가 이제 쿨드 워, 즉 냉전에서부터 쿨 워로 바뀌는 시대에서 그동안의 우리 통일외교라고 하는 것은 '정부 대 정부' 간의 말하자면 전통적인 정부 간 외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기구를 상대로 해서 하드 파워,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는 외교였는데,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는 '소프트 파워'에 중점을 둔 상대방 국민, 정부, 국제기구 또 글로벌 행위자들을 상대로 한 '쌍방향 소통 외교'라는 것입니다. 냉전시대에는 북한에서 맨날 대남 선전방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는 일방적인 홍보를 했는데 이제 공공외교적 차원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한 쌍방향소통 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통일외교에서 공공외교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2010년에 우리 외교부가 공공외교 추진 원년을 선포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늦었죠. 미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에서는 문화외교를 무척 많이 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지금도 문화담당관실에서 한국의 진보 진영과 보수진영을 가리지 않고 각계 인사를 만나러 다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문화를 통해서 계속 자기들의 장점을 전파

하고 학자와 예술인을 만나서 우호 세력으로 만듭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 주로 외교관들이 유엔이나 아니면 다른 국제기구, 다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외교만 쪽 해왔어요.

그러다가 2010년에 외교부는 공공외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프트파워를 동원한 외교 추진을 선언합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하드 파워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자각을 한 거죠. 이제는 중견국가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강대국과 약소국을 중간에서 중계해주는 역할, 가교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외교에서 공공외교가 아주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기별로 우리나라 외교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냉전체제의 경쟁, 남북 간의 경쟁을 위한 안보 중심의 반공외교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려면 반드시 3일간 반공교육을 받아야 여권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반공교육이 모든 것에 우선했고, 북한 사람을 만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허가 없이 만나면 조사를 받았죠.

1993년에 샌디에이고 국제회의에 북한 측 참석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리셉션 장에서는 북한 측 인사가 안 보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회의를 시작하는데 미국 측에서 나를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 혼자 왔는데, 북한에서는 두 명이 왔더군요. 대사와 서기관이 같이 왔는데 대사는 해변 쪽 좋은 방을 주고, 서기관은 마운틴사이드 쪽을 준겁니다. 둘을

떼어줬더니 안 떨어지고 같이 붙어 잔다며 나보고 설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 방에 찾아 가서 인사하고, 제가 남한에서 혼자 온 줄 알 텐데 선물 없냐 했더니 백두산 사진첩을 내놓더군요. 제가 사진첩에 한마디 서명해서 달라고 했더니, 여기 쓰면 보안법으로 잡혀 들어가지 않느냐고 묻더군요. 문제를 삼으면 그때 가서 해명하겠다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통일하는 그날까지 장선생과 함께, 북한대사 김종수'라고 썼어요. 제가 두 사람에게 미국 사람들이 방을 같이 쓰는 당신들을 동성애자로 오해하고 있으니 방을 따로 쓰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방을 바꾸더군요.

반공교육을 아주 심하게 하던 시절에 저도 신고를 늦게 해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도 다 있었나 싶겠지만 반공 중심의 외교가 아주 철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중반 이후 90년대 말까지 탈냉전이 되면서 우리가 경제적·외교적으로 좀 앞서가기 시작하니까 경제통상외교를 많이 시작했죠. 90년대 초반 민주화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주로 문화적이고 공공외교적인 차원에서의 모임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나 북한 정부가 아니고 주로 재미교포나 재미교포가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여현철 2000년대 후반부터 공공외교, 특히 통일정책 부분의 공공외교가 활발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철저한 반공정책에 입각

한 폐쇄적인 외교정책을 가지고 있었군요. 새삼 놀랍습니다.

장달중 문화외교, 공공외교를 얘기하는 소프트웨어까지도 그 당시에는 모든 게 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서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반공외교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90년대 말 소위 말하자면 탈냉전과 더불어 세계화가 진행되고 우리나라가 중견국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외교 파트너가 필요해집니다. 그에 따라 소프트파워의 중요성,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증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0년대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한 통일외교를 시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일외교가 시작된 것은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7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6·23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전이죠. 이때의 통일외교라고 하면 알아둬야 할 것이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북한과 교류하는 나라하고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외교 원칙을 따랐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할슈타인 원칙이라 합니다. 독일 외무장관이 '동독과 교류하는 나라와는 서독이 교류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발표했어요. 우리도 73년까지는 할슈타인 원칙에 따라서 북한과 교류하는 나라하고는 절대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습시다. 73년에 그 원칙을 무너트리고 통일외교를 시작하면서 우방국가의 유대관계를 강화함은 물론이고 북한과 교류하는 나라하고도 교류를 트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같은 걸 체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

도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계속 주장했어요. 한반도 남북문제를 왜 국제사회에 맡기느냐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외세에 맡기느냐 이겁니다.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개입하지 마라.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한 핵문제가 터지면서 남북문제가 한반도 문제로 결론나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어 버렸어요.

여현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는 정말 난해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북핵문제로 인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 및 제재로 인해 더 이상 한반도 문제를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 내지 민족 내부 문제로 상정하고 남북만이 풀어가기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장달중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국과도 외교를 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북한 때문에 제일 괴로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일 위험한 게 있으면 중국에선 북한을 싸고돌죠. 중국 사람들한테는 북한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게 북한 핵보다 더 걱정스러운 겁니다. 북한에서 혼란이 일어나면 북한 사람들이 다 중국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해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1994년에 미국 MIT대학에서 열린 학회에서 인도네시아에 정변이 일어나고 북한이 무너질 때 동아시아가 어떻게 변할 것이

냐 하는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국 대통령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때 이 행사를 두 시간 동안 일본 후지TV가 중계를 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수십만 명의 난민이 일본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걱정하는 일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에선 그렇게 내려올 배가 없으니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만 해도 남북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역학이 변화되니까 이제 현실주의적 시각, 냉전시대 시각만으로는 외교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정치권, 학계에 퍼지면서 공공외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공외교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문화지식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점진시키는 외교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주변국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시도로 공공외교가 등장했는데 이때 공공외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소프트파워입니다.

제가 그 무렵에 워싱턴에 갔더니, ‘아시아 국가들이 위상을 높려면’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콜 칼더 교수라는 일본 전문가가 저술한 책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미국 정부만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집단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싱크탱크라든가 대학, 문화 단체, 학술 단체에 접근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한국이나 싱가포르가 잘 한다는 겁니다. 2004년까지 미국 의회에 가서 우리나라 국가 수반이 6번이나 의회 연설을 했는데 일본 총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잘한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때 워싱턴 D.C.에 가서 안식년을 보내던 정교수들에게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회의가 엄청 많은데 한국은 회의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은 너무 중요하니까 회의를 많이 하고, 일본은 돈을 갖다 넣으니까 회의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돈도 안 주고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회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워싱턴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높이려면 칼더 교수가 지적했듯이 문화 단체와 기업·경제계에 친한파 인사를, 한국에 호감을 가진 사람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국학 전문가들이 많아야 합니다.”

중국 전문가, 일본 전문가 중에는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미국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가득한데 영향력 있는 한국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몇 사람 있었어요. 버클리 대학의 스칼라피노 교수라든가, 《두 개의 한국》이라는 책을 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오버도퍼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국 관계 회의를 소집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칼럼을 쓸 당시에 스칼라피노 교수는

이미 작고하셨고, 오버도퍼 교수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때와 병중이었어요. 말하자면 한국 전문가 1세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에 한국 전문가는 거의 없대시죠 합니다.

공공외교나 소프트웨어를 육성하려면 유럽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학을 하는 유명한 전문가를 길러내야 한다고 제가 칼럼을 한번 써서 환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와 공공외교가 중요시되면서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주미공사를 했거나 주미공사를 하다가 외무장관이 된 사람들이면 주미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2~300명의 친한파 그룹을 만드는 일이었다고 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내 친한파 인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을 들입니다. 비교적 성공을 거둬서 제가 봤을 때만 해도 한국 전문가만 되면 먹고살 만해요. 한국 전문가라고 하면 불러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동안은 없었던 말이에요.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들 중에서 말 한마디로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일본이나 중국은 있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전문가를 키워야 합니다.

정부가 당면한 외교 과제, 공공외교와 소프트웨어의 증대

여현철 공공외교의 차원에서 관주도로 의회에서 정상 연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지만 학계나 문화인사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 기금도 부족하고 적합한 지원 대상도 찾지 못했

고 특히 한국학 전문가 1세대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지만 현재 정부와 학계의 각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앞으로 한국이 공공외교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장달중 우리가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상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입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소프트파워를 통한 공공외교가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우리 외교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력을 하는 외교정책을 써서 무난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 갑자기 부상하면서 앞으로가 어렵게 됐습니다. 여담이지만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스티븐슨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한국에 평화봉사단으로 왔다가 미국에 돌아가 국무부에 들어가서 외교관이 돼서 주한 미국대사가 됐습니다. 전직 외교부 장관과 UN대사로 발령받은 분들 몇 분과 함께 저녁 만찬에 초대를 받았는데 스티븐스 대사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평택을 갔는데 평택 시청에서 주한미군 사령부 이전에 대해 브리핑을 하더라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들어올 곳을 가리키는 불빛이 서너 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평택시가 중국하고 교류하는 걸 언급하는데, 21개 불빛이 짝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쇼크를 받

왔습니다. 평택이라고 하면 한미동맹의 아주 상징적인 장소이자 핵심적인 장소인데 그 시에 갔더니 시장의 머릿속에는 미국은 없고 중국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쇼크를 받아서 저한테 답을 물어보는데, 저는 나한테 묻지 말고 여기 전직 외교관이나 현직 외교관에게 물어보라고 미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같이 미국 장학금을 받고 일본 장학금을 받고 미국서 유학하고 일본서 유학했는데, 미국이나 일본 가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국에 주류를 형성했었다. 앞으로는 안 그럴 것이다. 중국 때문에 먹고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진다. 미국이 구조적인 현상에 적응을 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에 회의를 가거나 일본에 회의를 가면요, 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은 중국으로 쏠린다, 중국 경사론(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고 미국과 멀어진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믿을 사람들이 못 된다,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한국 내버려라.”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미국엔 왜 붙어 있난 말이야. 한반도 통일에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일본을 내버려두고 중국하고 교류하면 더 좋아지는데” 이럽니다. 여러분 전에 사드 때 봤죠? 또 관광객 못 오게 중국이 하는 것 봤죠? 양자택일하라 그겁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린 둘 다 필요합니

다. 양쪽에 다 미움을 안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외교 과제입니다.

여현철 미중 전략경쟁이 점점 심화될 텐데, 한국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해진 것 같습니다. 난처함을 넘어 사실 우리나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일 텐데요. 여기 있는 모든 청자들이 그 해답의 실마리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달중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이 '계속 전통적인 우방 관계를 훼손하면서 중국에 너무 기울어지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대해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야,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 말이야, 미국하고 맨날 손잡고 다니지 않냐" 이려고선 욕을 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문화적 자산을 이용하거나, 글로벌 사회에서 IT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을 통한 공공외교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성공적으로 해왔던 K-Pop이나 IT 기술을 통한 공공외교가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일본에선 먹히는 것 같지만 더 이상 중국에서 잘 먹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앞으로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탈출구를 마련하는 가장 책임자는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이 젊은 세대가 어떻게 이러한 외교적 난관을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다시피 현재 전통적인 우방관계에서는 자꾸 한국이 중국과 더욱 밀접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완화시키느냐는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적인 파워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죠.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의 마음을 돌려야 하고, 미국의 여론을 형성하는 지식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지식인들의 문화교류 같은 것이 많아져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43대 대통령, 2001~2009년 재임, 9·11 테러사건 이후 대테러전 전개,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 수행)을 만나러 갑니다. 그 당시 이라크를 침공한 부시가 무지하게 무섭잖아요. 남의 말 안 듣는 것으로는 트럼프 못지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녁 식사하자고 저를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저녁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부시를 어떡하면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리 총리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가 일본을 갔을 때 부시를 만나고 온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이자 현재 일본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서 점심을 하는데 부시 대통령을 만난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부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신조라는 일본인 선수가 뛰고 있는 뉴욕 메츠를 방문했는데 뉴욕 메츠 야구팀의 구단주가 시구를 요청했습니다. 시구를 했더니 메츠 구단의 광고 모델이 되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총리를 그만두면 광고 모델을 좀 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부시를 만나 미일 동

맹이 이러쿵저러쿵 많은 대화를 했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때 모리 총리가 부시에게 “제가 뉴욕 메츠에 들렀는데 뉴욕 메츠 구단주가 광고 모델이 되어 달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부시가 얼굴이 환해지더니 야구 얘기만 했대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아주 잘 되었다는 겁니다.

노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박세리와 박찬호 얘기가 하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박세리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교에서는 유머 감각과 사교성이 중요합니다.

북한 사람들 만나면 유머감각이나 사교성이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면 적대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평양에 갔을 때 나를 전담하는 사람이 장 씨예요. 나랑 같은 장 씨인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가정보원 출신인 거 같아요. 우리를 아주 험하게 대하더군요. 저녁 먹고 회의를 하는데 의견 충돌이 있어서 북핵문제는 평양에서 회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 안하면 뭐 하러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날 저녁에 “당신 어디 장 씨요?” 하고 물었죠. 나하고 같은 장 씨는 아니었어요. 제가 올진 장 씨인데 그는 인성 장 씨인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자네보다 내가 나이가 훨씬 많고 같은 집안의 어른인데 하는 자세가 그게 뭐야!” 하면서 막 따졌어요. 그때부터는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이런 문화적인 것이 잘 통하더라구요. 이 친구가 그다음부터는 아주 친절했어요. 제가 또 한번 써먹은 게 중국 대사관에 공무담당 장 씨가 하나

있더라고요. 중국대사하고 신라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나더러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일본 초대 수상을 지낸 일본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시다 시게루라는 사람의 별장이 있어요. 별장을 가보면 울타리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울타리가 없으니.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왜 여긴 울타리가 없느냐” 그랬더니 요시다는 “저쪽은 태평양이고 미국이 있는데, 미국이 우리집에 쳐들어오겠어요?”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나는 미국을 신뢰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중국 측에 한 번 했어요. “이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가 중국을 믿을 수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 씨는 공무를 담당하는 친구가 따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잘라, “당신 어디 장 씨야? 한국에 왔으면 같은 장 씨 선배가 이끌면 찾아보고 인사도 해야 하는데, 안 하지?”라고 말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찾아와서 손 붙잡고 그랬습니다.

여현철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수님의 성씨를 주제로 북중 담당자들과 나눈 대화는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소프트파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공외교 무대에서 멋지게 활약하신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달중 외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문화적 자질인데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파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비스마르크

크가 그렇게 농담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유명한 전략적 모호성(참여 여부를 놓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독일 제국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했어요.

한국도 일본도 동아시아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중국하고 얘기하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설득력이 있게 좀 했어야 하는데 설득력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통일의외교로 가는 데 있어서 문화적이고 소프트파워의 매력을 동원한 공공외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통일을 담당할 중심세대는 20대인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20대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입니다. 30대와 40대가 다소 진보적이면서 긍정적인데 반해서 60대보다도 20대가 더 부정적이예요. “지금 통일에 관심이 없다”, “통일이 무슨 문제야. 그것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공동체가 있고 나서 개인이 있지, 개인이 정치적 공동체 없이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연대감, 공공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현재 민족 분단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생들에게 그동안의 반공교육 중심의 통일 안보 교육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소프트파워적인 문화적이고

정보지식적인 시각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주로 북한의 이해, 이런 데에 모든 것의 관심이 맞춰져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각 대학에 북한학과만 있지 통일학과는 없어요. 이것도 좀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북한학과를 가면 주로 대북이나 정치·경제만 가르쳐요. 근데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북한의 영화, 미술 말하자면 문화, 이런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묘향산을 갔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나를 안내하는 여자 대학생이 아버지가 군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군인 계급이 뭐냐” 이랬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더니 “군사칭호를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북한에서는 군사칭호(‘계급’의 북한어)라고 하지 계급이라는 말을 안 써요. 언어가 벌써 이만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간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을 교육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이 된 이후에 남북한 간의 마음의 통합,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심리적인 접근에 관련된 준비도 해야 돼요. 이것이 다 소프트파워입니다. 공공외교, 전통적 외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학생들이 이런 역할을 앞으로 한다면 좋겠어요.

저는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지만 앞으로 교류가 되면 대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해요. 제가 보기엔,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용어도 다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경

우가 많거든요. 특히 남녀관계에서는 더 심할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적 이해의 공감, 이런 것들이 양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 주체는 대학생들이에요. 어떤 것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주도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대학생들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통일 공공외교도 북한의 이해나 우리의 이해를 강요하고 선전하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남북관계에 보다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북한에 대한 강의를 보면 주로 북한의 정치체제 이런 거나 가르쳤지,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 별로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앞으로 대학 커리큘럼에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커리큘럼이 많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 마음의 통합, 사회적 통합, 정치적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 간의 이해의 바탕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통일교육이라든가 통일외교나 이런 것이 이념이나 정파를 초월해야 해요.

여현철 분단이 벌써 두 세대를 넘어가고 있는 현재, 대학생들이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사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특히 정치공동체가 있어야 개인의 생존도 보장된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가 있을까요?

장달중 상당히 중요한 모델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1976년 서독의 보수·진보 학자 등이 모여 정립한 것으로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은 교육을 목표로 하는 지침)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통해서 상당히 동독과 서독 간의 교류도 많이 됐고 이념이나 정파를 초월한 교류가 많이 이뤄졌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인 1992년에 회의가 있어 독일에 갔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일주일간 동독 여행을 시켰어요. 라이프치히에 가서 마르크스 대학 기숙사에 갔는데 기숙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동베를린에 호네커라고 하는 동독의 국가수반 집무실을 가봤거든요? 집무실을 가면 다들 놀라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 독일 교수들도 놀라요. 그렇게 검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잔혹한 행위 때문에 살상에 대한 금기 같은 것이 양쪽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북한에 자꾸 퍼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옛 서독에서는 '프라이카우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동독의 포로들이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돈을 계속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교류를 통한 공공외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동독 사람들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바이마르에 갔을 때 동독 사람들이 영어를 무지하게 열심히 배워서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서 신부들이 계속 공산치하에서도 모임을 갖고 시민 NGO 활동을 계속 했더라고요.

북한에는 이런 것은 없지만 장마당 같은 것을 통해서 북한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란 거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남한의 방송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고 노래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보와 문화의 교류가 계속되어야 해요. 지금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하는 나쁜 행위 중 하나가 가서 '내가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이런 식으로 자꾸 줄 것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땐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도 어려웠을 때 미국이나 일본이나 서구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고 북한을 원조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경제적 원조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얻는 외교가 필요한데 그런 외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러시아 전공하는 사람, 중국어 전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많이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공공외교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외교의 중심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특강





통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대담자 김주현

전 파이낸셜 뉴스 대표이사, 현 포스코 사외이사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아이오와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와 애리조나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 파이낸셜뉴스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는 포스코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여현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인이 본 한반도'라는 주제로 실제 경제 현장에서 사업을 일구고 계시는 김주현 사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사장님은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포스코 사외이사이자 파이낸셜 뉴스의 사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김주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모여서 같이 강의를 듣지 못하고 영상으로 만나게 된 것을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한반도 통일과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한

반도에서 젊은이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또 우리가 겪게 될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해보았습니다. 첫째 ‘통일, 꼭 해야 하는가?’, 둘째 ‘북한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셋째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족 동질성’의 측면, ‘회복과 치유’의 측면, 통일 한반도가 됐을 때 ‘경제적인 피스코리아의 형성’ 측면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현철 한반도에 살아가는 젊은이의 의식과 역할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청년층에서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 그 자체를 잘못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 기성세대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통일이란 명제에 다르게 접근하는 청년층을, 우리 세대는 걱정 어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그 주장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혹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가에 대해,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주현 우선 ‘우리는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 하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통일 관련된 설문조사는 여러 기관에서 계속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1년에 4번 설문조사를 합니다. 통일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가장 최근 자료, 그러니까 올해 1/4분기에 실시한 민주평통의 설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는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상대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탈북한 학생들도 있고 또 남쪽에서 자란 학생들도 몇 분 있을 텐데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한이 과연 우리가 협력하고 지원해야 하는 우리의 동포인가, 아니면 우리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대상인가, 아니면 별 상관없는 다른 나라와 비슷한 대상인가. 그럼 이제 그런 설문 문항을 무응답 포함해서 했을 경우에 ‘지원 대상’이라는 응답이 44%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아니다’, ‘적대관계’ 내지는 ‘경계대상’이라고 하는 응답이 36%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 즉 설문조사의 결과는 설문을 진행하는 당시 우리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남북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남북관계가 좋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상황이면 협력하고 같이 살아야 될 대상으로 상향되었다가, 반면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치는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표 3-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2020년 1/4분기에 실시한 통일 관련 설문 조사 결과 1

설문 조사: 민주평통&한국사회여론연구소(2020.3.27.~28.)

◇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요?

협력 내지 지원 대상	적대 내지 경계 대상	별 상관 없는 대상	무응답
44.2	36.1	15.5	4.2
협력/지원 대상: 52.4%(2019. 1/4) → 44.2%(2020. 1/4) ▼			
적대/경계 대상: 28.9%(2019. 1/4) → 36.1%(2020. 1/4) ▲			

◇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별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무응답
35.2	33.9	19.6	9.1	2.1
필요(매우 + 조금): 76.2%(2019. 1/4) → 69.2%(2020. 1/4) ▼				

1년 전 1/4분기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협력 지원 대상’이 52%나 됐고 ‘적대 대상’이라는 게 28.9%밖에 안 됐는데, 이 표를 보시면 최근 1년 동안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 비율이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세요. 나는 북한이라는 대상을 협력하고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경계하고 적대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지.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통일이 꼭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별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무응답까지 이렇게 해서 5문항으로 보면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치면 거의 70%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북한과는 적대·경계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70%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관계가 좋을 때는 굉장히 높아요. 1년 전에 보면 76.2% 나왔습니다.

여현철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통일이 되면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주현 네. ‘통일이 되면 우리 남한에게 도움이 될까?’,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나아질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되면 지금보다 좀 잘 살게 될 거라는 게 ‘매우 공감’, ‘조금 공감’ 합치면 이것도 한 60%가 됩니다. 그리고 ‘아니’,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9%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설문 당시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1년 전에 보면 매우 공감이 65%이었는데 지금 6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북관계라는 게 이런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 정도 되고, 통일되면 뭔가 좀 좋아지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 가까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에게 나는 어디에 속하나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조사를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뭘 물어왔냐 하면 통일을 해야 되고, 통일하면 좀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남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을 해봤더니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남북관계가 향후에 ‘아주 좋아질 거다’, ‘다소 좋아질 거다’ 하는 사람이 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변화 없을 거다’는

사람은 47%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되고 통일되면 좀 나아질 거다 그러는데, 지금 현상을 보면 앞이 좀 캄캄한 게, 남북 관계에 '변화가 없을 거다'는 응답이 47%나 나옵니다.

이것도 일 년 전보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1년 전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만난 직후에 보면 높았어요.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툇 떨어졌지요. 그때만 해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았는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사람의 비율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그래서 남북관계는 남북 간의 현재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남북의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표 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2020년 1/4분기에 실시한 통일 관련 설문 조사 결과 2

설문 조사: 민주평통&한국사회여론연구소(2020.3.27.~28)

◇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잘살게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십니까?

매우 공감함	조금 공감함	별로 공감없음	전혀 공감없음	무응답
24.4	34.7	26.6	12.6	1.7
공감(매우+조금): 65.2% (2019. 1/4) → 59.1%(2020. 1/4) ▼				
비공감(별로+전혀): 33.3% (2019. 1/4) → 39.2%(2020. 1/4) ▲				

◇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매우 좋아질 것	다소 좋아질 것	변화 없을 것	다소 나빠질 것	전혀 공감없음	무응답
5.7	34.6	47.4	6.2	2.2	3.9
좋아질 것(매우+다소): 55.3% (2019. 1/4) → 40.3%(2020. 1/4) ▼					
변화 없을 것: 30.7% (2019. 1/4) → 47.4%(2020. 1/4) ▲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

여현철 남북관계의 추이나 상태에 따라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정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막연한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면 사실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통일은 긍정적인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결국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서는 나름의 긍정적인 마음과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으나,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의 행태에서 오는 실망감이 결국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결국 통일의식을 확산시키는 길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그 외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통일을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주현 '통일, 꼭 해야 되나' 그 이야기를 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잡았냐 하면,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지금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내가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힘든데 우리보다 훨씬 어렵게 살고, 못 사는 북한하고 합쳐 가지고 뭐 좋아지겠냐? 그 통일 꼭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전에 북한과의 싸움으로 가족들이나 본인들이 다쳤던 사람들은 "내가 겪어봤는데 공산당하고 같이 못 살아, 그거 통일 안 한 게 나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

고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민족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헤어진 사람들인데 다시 뭉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적어도 오늘 제 강의를 들은 젊은 사람들은 통일 그러면 다음의 세 가지는 마음 속에 품고 통일에 대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언어와 역사, 문화가 같은 한 민족입니다. 원래 흩어져 있고 원래 갈라져 있던 민족이 아니라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화하기 전에 우리는 한 민족이었죠. 일제 통치에 들어가고 우리 민족들이 만주로 중국으로 흩어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해서 흩어져 있다가 해방이 됐는데 조금 지나 남북이 갈라진 거죠. 북쪽에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공산 정권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군정의 지원을 받은 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전쟁을 하고, 휴전을 하고 나서 서로 철천지원수처럼 됐다가, UN에 동시 가입하면서 사실상 분리된 두 나라처럼 되지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남북이 엄연히 다른 두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청와대 습격 사건, 두 차례의 연평해전^{서해교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여러 차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 거리가 점점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한다는 것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

아가는 것, 통일의 첫 번째 이유는 회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현철 분단 상황을 부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시각 자체가 최근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근대 민족국가로 발전하지 못하는 큰 이유도 분단이 극복되지 못해서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역사의 진보를 함께 이루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주현 두 번째는 ‘치유와 화해’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남북이 갈라져 있으면서 앞서 이야기한 전쟁도 치르고 크고 작은 전투도 하고 이러면서 남북 간에 상처도 너무 많고, 서로에 대한 악감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으로서 이제는 화해하고 치유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한국전쟁으로 흩어져서 이산가족이 된 사람이 거의 13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지금은 탈북민으로 인해서 이산가족이 새롭게 생겨요. 지금 남쪽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이 대략 3만 2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 땅에 나와 있는 사람, 러시아에 가 있는 사람, 만주에 가 있는 사람, 태국이나 라오스 쪽에 흩어져 있는 사람, 또 유럽에 흩어져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연유이든 간에 북한을 탈출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약 1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져도, 대략 60만 명의 이산가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산가

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달래줘야 될 의무가 우리 한민족에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현철 결자해지라고 하죠. 우리가 이미 겪은 아픔들 또한 과거의 것으로 치부하고 묻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듬고 어루만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년층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겠군요. 마지막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주현 통일을 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이 자리에 강의를 듣는 젊은 학생들의 미래가 한반도 통일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남쪽 경제가 점점 더 성장률이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직하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남쪽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다가 지금은 성장이 정체 국면에 들어온 거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남북이 합쳐져서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할 계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남쪽의 인구는 5,000만 명,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1천 달러가 좀 넘습니다. 그럼 북쪽의 인구 2,400만 명, 1인당 국민소득 1천 달러 내외. 뭐 통계기관에 따라 700달러로 보는 데도 있고, 1,300달러로 보는 데도 있고 한데 대체로 그냥 평균 잡아 1인당 국민소득 1천 달러라고 생각하면, 남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3-3 남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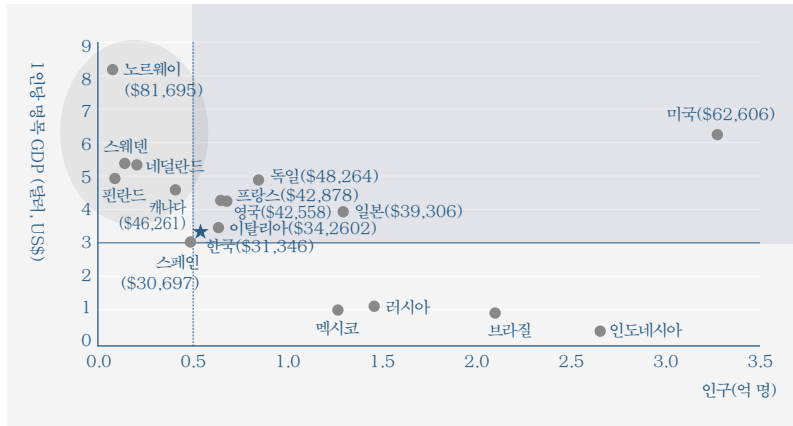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북한	124.2	133.4	137.1	137.9	138.8	139.3	146.1	146.4	142.8	140.8
남한	2,673.0	2,798.6	2,898.8	2,995.1	3,094.8	3,260.2	3,411.2	3,588.6	3,693.0	3,743.5

출처: 국가통계포털(검색: 2020.08.21.)

그래서 남북한이 합쳐지면 우리가 말하는 시너지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시너지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산술적으로 두 나라를 합쳐 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 평균을 내면 인구는 어떻게 돼요? 인구는 합치면 7,400만 명이죠? 국민소득은 둘이 합쳐서 평균을 내보면 2만 1천 달러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들, 21,000달러라고 하니까 방금까지는 31,000달러로 있다가 21,000달러로 떨어져서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죠. 전 세계에서 인구가 5,000만 명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넘는 나라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여섯 개 나라인데 한국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넘고,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이 파란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데 2만 달러로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아까 합쳐지면 21,000달러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인구는 7,400만 명이 됩니다. 전 세계 국가가 200개가 넘습니다. 22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이 구간

그림 3-1 세계 국가별 인구 대비 1인당 GDP 분포도



자료: IMF, 주: 2018년 기준

인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통일되었을 때 7,400만 명의 인구에 21,000달러의 국민소득이라면 세계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고, 대단한 나라예요.

한국을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이유는 한국 인구가 5천 만이 넘고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일되면 인구는 7,400만 명에 국민소득은 2만 달러 넘게 됩니다. 시너지 효과를 조금만 발휘하고 화합하면 금세 3만 달러대로 회복되면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게 됩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세계를 이끌었잖아요.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를 이끄는 축이 미국으로 넘어갔지만 그전에는 유럽에 있었거든요. 유럽에 있었던 나라가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인데, 독일의 인구가 8,100만 명 정도이고 프랑스, 영국이 7천만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틈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여현철 국가경제의 총량이 커지는 것 이외에도 많은 시너지 효과들이 있겠죠?

김주현 통일은 대단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21,000달러가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요. 남북이 합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냐 하면, 우선은 5,000만 명 시장에서 7,400만 명 시장으로 내수시장이 커집니다.

그다음에 남북 간에 산업구조가 북한은 주로 경공업 중심이고, 우리는 주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쪽의 경공업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로 많이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모두 한국으로 유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산업인력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훈련이 잘된 사람들이라고 여겨져요.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지난 10년 동안 해봤지만 북한 인력이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중국 인력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와 같이 일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을 하기 위해 수입을 해야 되는 망간, 철광석 이런 것들이 품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북한에 매장량이 굉장히 많아요. 남쪽에는 북쪽보다 산악지대가 적기 때문에 광물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지하자

원이나 산업구조를 조정할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제일 좋은 점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를 한반도의 철도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류통로가 확보되는 그런 좋은 일이 되지요.

세 번째는 인구 구조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우리의 출생률이 지금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출생률이 1.0 이하라는 말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하나도 안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아직 2.0 정도 됩니다. 두 명 정도는 낳는 거죠.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의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악화되는 것을 다소 막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현철 인구와 시장, 물류와 이동로, 인적자원의 우수성 등 통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유인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김주현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위협입니다. 한반도는 항상 군사적인 긴장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언제 전쟁이 다시 날지도 모른다는 위협 때문에 자유롭게 투자하지 않아요. 남쪽이 60만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이 120~130만 정도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합치면 180만에서 190만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7,400만 명의 인구에 180만 군대를 갖고 있는 셈이죠. 국방비로 얼마나 쓰냐 하면 남쪽은 2020년에 정부예산 540조 중에서 10%인 50조 이상을 국방비에 씁니다. 그런데 독일을 보면 8,100만 명 인구에서 군대는

30만 명 수준입니다. 통일 후 인구가 7,400만 명이면 우리도 30만 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독일 수준을 유지한다면 180만 명에서 30만 명을 뺀 150만 명은 군대에 갈 필요 없이 우리의 산업인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 3-4 남북 군사력 비교

군사별	2016		2018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병력 (평시)	육군	110만여 명	49.0만여 명	110만여 명	46.4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7.0만여 명(해병대 2.9만여 명 포함)	6만여 명	7.0만여 명(해병대 2.9만여 명 포함)
	공군	11만여 명	6.5만여 명	11만여 명	6.5만여 명
	전략군	1만여 명	-	1만여 명	
계	128만여 명	62.5만여 명	128만여 명	59.9만여 명	

출처: 국가통계포털 (검색: 2020.08.21.)

예산도 독일은 1년 국가예산의 3%가량을 국방비로 쓰는데 우리는 지금 10%를 쓰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지 않으면 예산과 인력을 빼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에서 양쪽에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이 합쳐지면 잉여 인력과 예산이 생깁니다. 그것이 북한 개발에 사용하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현철 분단비용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한 시너지 효과를 차치하고서라도 분단비용의 절감만으로도 우리 경제의 비용을 감소시켜 더욱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께서는 통일일이 가져다줄 시너지효과보다는 반대효과, 즉 통일비용이랄지 각종 반시너지 효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주현 통일이라는 게 우리에게 큰 시너지를 주는데 물론 모든 게 항상 시너지를 주는 건 아니고 반시너지도 있죠. 오랫동안 우리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로 상처도 많고요. 남쪽에는 동서의 갈등구조가 굉장히 심각해서 몇 십 년 동안 갈등을 겪었는데, 이제 남북이 또 그와 유사한 갈등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지요. 이념, 체제, 교육 같은 게 오랫동안 달랐기 때문에 북한을 떠나서 남쪽에 와서 사는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힘든 것처럼 남북이 통일되면 또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겪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회복하자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의 아픔에 대해서 치유하고 화해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가 한반도 통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나 친구들 만나서 “통일? 그거 꼭 해야 돼?”라는 질문을 받으면, 적어도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그래 통일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현철 통일은 정말 커다란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 같습니다. 민족적 당위는 물론 경제적 지표 등을 활용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 강의를 들은 분들께서는 통일에 대해 나름의 견해와 그것의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통일을 하려면 한국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도 설득해야 하고 상대인 북한을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동포이고, 체제경쟁의 대상이자 교류협력의 대상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북관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결국 통일 의식이 확산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현재 북한이 우리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더욱 개선하고자 할까요?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변화해갈 것인지, 혹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주현 네.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인 ‘북한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북한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종합하

고 분석해봅니다. 북한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북한을 볼 때 지도체제가 안정되어 있는지 보는 게 최우선입니다. 우선 보면 지도체제가 안정되었는가, 주민들이 동요하는가, 통제 가능한가를 가지고 two by two(2×2) 매트릭스로 분석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체제가 불안하고 주민들도 동요한다. 그럼 이걸 벌써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 단계는 아닌 거 같아요. 김정은이 처음 권력을 잡았을 때는 공포정치도 있었고 조금의 동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강화된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주민들이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 외부 정보를 계속 듣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왜 괜찮아지다가 다시 어려워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소 불안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표 3-5 북한체제의 안정도 분석

북한체제의 안정 여부		
	지도체제 불안: 김정은의 정권 장악력 불안	지도체제 안정: 김정은의 정권 장악력 안정
주민 동요: 경제 침체 & 외부정보 유입 확대	- 체제 동요·붕괴 • 주민 통제 어려움 체제 충성도 하락	- 체제 불안정 • 정권 vs. 주민 간 갈등 개방과 vs. 자주와 간 다름
주민 통제: 경제 안정 & 외부정보 유입 차단	- 체제 불안정 • 집권 세력내 권력 다툼	- 체제 안정 지속 • 변화 & 발전 느낌

여현철 북한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문제는 아무래도 식량문제가 크게 작용하겠죠? 강화된 경제제재로 인해 식량과 유류는 물론 각종 공산품들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주현 과거 유엔인권이사회나 국제인권 단체도 북한 식량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북한의 식량난 수준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북한도 없다는 소리 안 하고 국제 사회도 지원하지 않다 보니 결국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은 아사자가 생겨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 역사상 근대사회에서 굶어서 10만 명 이상 죽은 역사는 없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게 죽지는 않아요.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으로 200만 명이 죽었던 시기는 정보가 부족하고 국제사회가 손을 못 쓰던 19세기 이야기입니다.

UN에서 제재가 결정될 때 항상 제재 전문에 생필품에 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국경지방에서 보따리장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제재하지 않는 이유는 생필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석유 400만 배럴과 석유 정제품 50만 배럴을 허용하는 이유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여현철 특히 강화된 대북제재에서는 해외의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철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외 노동자들의 월급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을 텐데요.

김주현 북한이 최근에 가장 아프게 느끼는 것은 해외 노동자 송출 문제입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에 스탬프를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을 8만 명 정도로 봅니다. 물론 동북아시아에 그냥 몰래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러시아에 가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식적인 해외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습니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면 UN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다 돌려보냅니다.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3개월짜리 여행 비자를 끊어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서 일하고 북한에 돌아옵니다. 문제는 이 8만 명에 가까운 공식적인 해외 노동자들이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외화 수입이 거의 끊어진 상태입니다. 3개월짜리로 가는 사람은 옛날처럼 많을 수는 없죠.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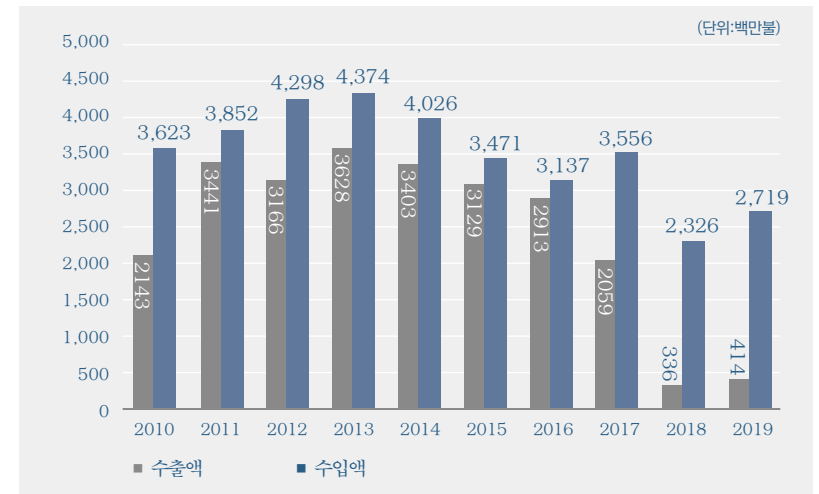
북한 데이터가 늦게 나오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정자료이긴 하지만 다음의 데이터를 보면 북한의 수출규모가 2014년까지는 그런대로 버텼어요. 그 이후에 수출이 줄어듭니다. 수입하고 수출하고 차이가 무역적자잖아요. 무역적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건 2017년, 2018년입니다. 지금 상태로 제재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2020년 이후 무역

적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추정됩니다.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되냐면, 경제성장률이라는 건 1년에 어느 나라가 몇 퍼센트(%) 성장한다는 건데 우리 남쪽 같으면 1980년대에는 9~10% 성장하다가 90년대 6~7%, 2000년대 들어와서는 5%, 요즘은 한 2.5~3% 성장하고 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1.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에는 마이너스 1.1%를 기록해요. 2016년에 3.9%로 크게 반등했지만 2017년부터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옵니다. 2017년에는 마이너스 3.5%, 2018년에는 마이너스 4.1%이고 2019년에는 0.4%로 2016년(3.9%) 이후 3년 만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2019년의

그림 3-2 북한의 수출 수입액 변화



출처: 한국무역협회 (검색: 2020.0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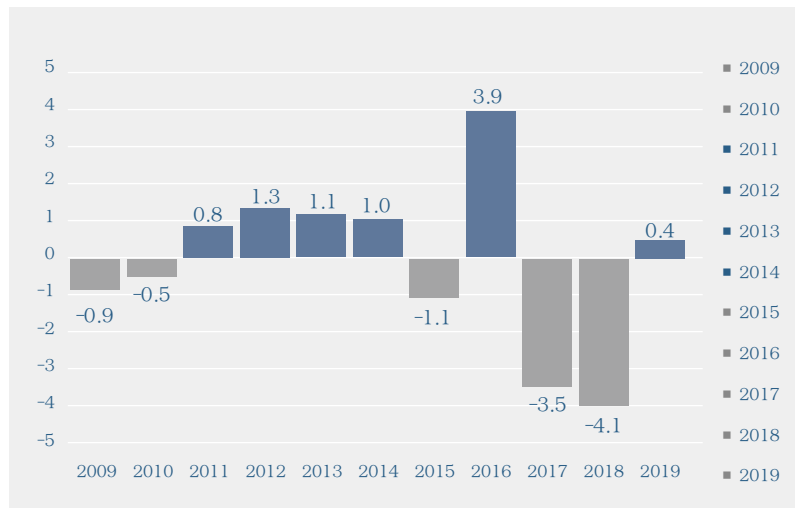
표 3-6 북한 무역 통계

(단위: 천달러)

년도	수출		수입		수지
	수출액	수출증감률	수입액	수입증감률	
2010년	2143	46.6	3,623,092	22.7	-1,484,755
2011년	3441	60.1	3,852,208	6.3	-428,910
2012년	3166	-7.5	4,297,761	11.6	-1,129,956
2013년	3628	14.7	4,373,550	1.8	-738,778
2014년	3403	-6.5	4,025,949	-7.9	-628,301
2015년	3129	-8.5	3,471,367	-13.8	-362,138
2016년	2913	-6.6	3,137,024	-9.6	-234,172
2017년	2059	-29.1	3,555,761	13.3	-1,496,754
2018년	336	-83.7	2,326,230	-34.6	-1,989,754
2019년	414	23.1	2,718,814	16.9	-2,304,639

출처: 한국무역협회 (검색: 2020.08.21.)

그림 3-3 북한 GDP 성장률 추이



출처: 한국은행(2020.7.31.)

북한 경제성장률이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하였으나 아직도 적자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현철 이러한 적자국면이 지속되면 어떤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김주현 북한은 1989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1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 플러스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을 왔다 갔다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제재가 풀리거나 무슨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대로 갈 걸로 보입니다.

남북한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파란 게 남쪽 경제인데 지난 40년 동안 남쪽의 경제 성장률이 2013년~2014년부터 약 2.5~3% 안팎으로 저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2013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딜레마’라고 봅니다. 핵개발과 경제성장을 병행하겠다는 게 핵·경제 병진노선입니다. 말은 멋있는데 핵과 경제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시소를 타면 양쪽 끝에 앉은 사람이 다 올라가고 싶지만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이 내려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핵을 개발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수출은 못하게 하고 제재를 가해서 금융도 이용 못하게 하고, 수입도 못하게 됩니다. 이러면 경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경제를 살

리려면 경제제제를 풀어야 하는데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경제제제를 풀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나름대로 핵을 일부 가지면서 아니면 일부만 포기하면서 어떻게 경제제제를 완화해볼까 하는 게 희망사항인데 국제사회가 그건 용인하지 않습니다.

여현철 병진할 수 없는 것을 병진하고 있기에 그 모순점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군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체제의 내부단속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할 텐데요.

김주현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을 전체적으로 평가해보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별을 뺐다가 붙였다가 대장을 중장으로

그림 3-4 남북한 경제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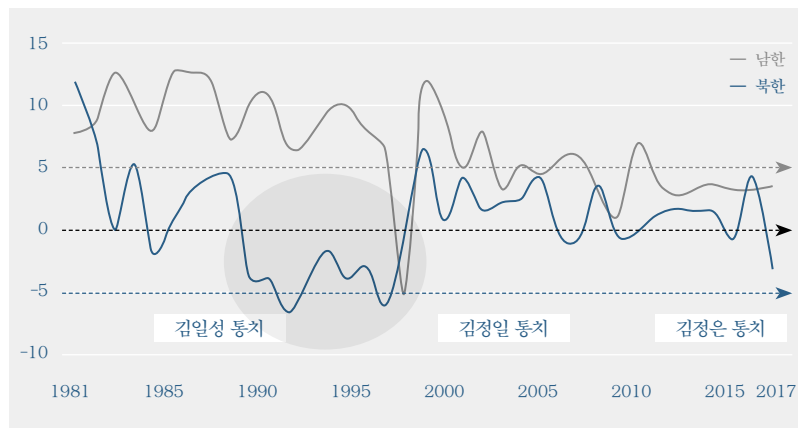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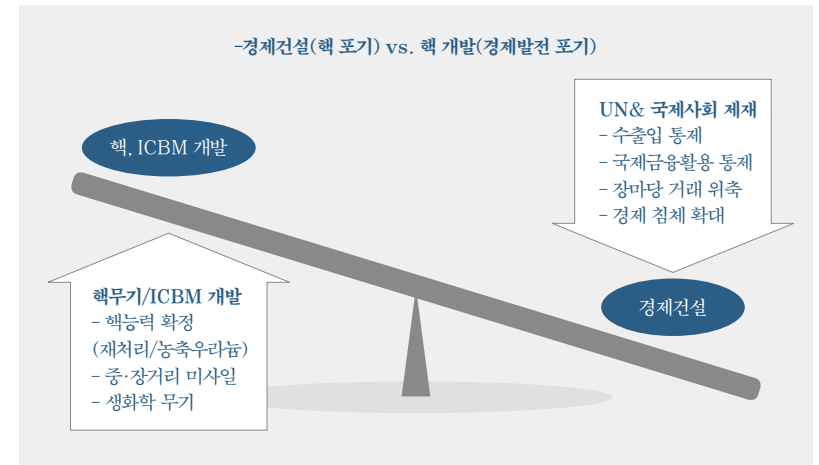


그림 3-5 경제·핵 병진노선의 딜레마



만들거나 중장을 대장으로 만들었다가 처형도 하고, 심지어 고모부도 처형하면서까지 공포정치에 가까운 공안정치를 했기 때문에 체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중동에 수많은 나라를 봐왔지만 어느 나라나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끝까지 따라오지 않습니다.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체제 자체가 안정적으로 가지 못한다, 위협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측면을 보면 UN 제재는 협상이 안 되고 제재가 지속되면 해외인력 파견을 못하게 되고 외화벌이가 끊깁니다. 외화가 없으니 생산 활동을 위한 수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자급자족에 의해서 최소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노동신문>, <중앙통신>, TV, 라디오 매체들을 전부 종합해서 국정원에서는 매일 매일 북한의 주요 뉴스를 요약합니다. 이 자료는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최근에 한 서너 달 동안의 자료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자력갱생'입니다. 농장이나 닭공장을 비롯해 모내기 현장에서 현지 지도하는 내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자급자족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나오는 뉴스는 러시아와 중국하고 뭘 했다는 이야기와 미국하고는 대등한 외교를 하고 있다는 대내 선전용 기사들입니다. 자급자족하고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민들을 독려하는 내용이 부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로 4년째 마이너스 성장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평양이나 원산이나 신의주, 뭐 이런 큰 도시는 괜찮겠죠.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과의 접경 지역도 옛날처럼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여현철 북한이 가뜰이나 어려운 상황이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무역과 재정에서 동시에 적자가 발생하는 와중에 식량난까지 가중되어 심각한 경제상황에 처한 북한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미국을 비롯한 국제정세를 면밀히 읽어 그 사이에서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미중경쟁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

지러운 현재의 국제정세에서 북한의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핵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행보를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주현 우리의 대화 상대이고 어떻게 보면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고, 미국은 올해 11월 말까지 선거 국면입니다. 미국은 대체로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면 대북 협상팀을 꾸리는데 빨라야 석 달, 늦으면 6개월도 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4분기까지 북한하고 협상하러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바이든의 민주당으로 바뀌는 바람에 선거 끝나고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제재가 계속되기 때문에 빨리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고 대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미국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함께 남쪽에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여러 가지, 아주 정교한 도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전선 부근에서 포사격 문제는 UN에 갖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휴전 중일 때 휴전 당사국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게 되면 UN에 갖고 가서 제재국면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슈를 제기할 때 이게 남쪽 정부를 향한 건지, 아니면 미국을 향한 건지 아니면 UN을 향한 건지 잘 봐야 됩니다.

미국한테 빨리 나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올해 말까지는 아무리 빨리 나오라고 해봐도 미국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나 미국 대선이 끝날 때쯤이면 북한의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우리 핵 다 끝났으니 빨리 협상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이 정교하게 다 개발됐으니 빨리 협상테이블로 나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이 그 말 듣고 '그래 알았다' 협상하자 그리고 테이블로 나오면 다행이지만 '어? 발사했어? 그래? 그러면 때려.' 이렇게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위험한 국면이라고 보는 거죠.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여현철 앞에서 우리의 국익과 젊은이들의 미래는 통일에 있으나, 현재 북한의 상황이나 북핵문제는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 그리고 국익을 위해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주현 우리가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만 반대하는 이슈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 무장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전략무기감축협정을 통해 핵무기를 감축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냉전시대에는 전 세계에 핵탄두가 약 15만 개 있

었습니다. 미국이 70,000~75,000개, 러시아가 75,000개 정도 양국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영국이 200개, 프랑스 300개, 인도 30~40개, 파키스탄 30~40개, 중국 150개 정도 있었죠.

이랬다가는 지구가 통째로 날아가겠다고 해서, 미국하고 소련이 전략무기감축협정을 시작합니다. 약 15만 개에서 15,000개로 십분의 일 정도로, 해마다 핵탄두를 폐기하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장거리탄두도 줄이지만, 중거리탄두까지 해서 핵탄두를 줄이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지도부가 바뀌더라도 그 협상은 계속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중국이 대두되면서 몇 달 전부터 중국도 중거리 협상에 들어와라 마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나라가 핵탄두를 개발하고 핵보유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 세계가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남쪽이 갖게 되고, 남쪽이 갖게 되면 일본이 갖게 되고, 일본이 가지면 대만이 갖고 중국이 더 갖고 이러면 지난 40년, 50년 동안 핵협상에 의해서 줄이던 게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보유를 아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New START라고 전략무기감축협정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동아시아에 지역 균형을 깬다는 게, 전 세계 핵무기 감축협상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야 니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보곤 못 가지게 하느냐”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 협정 안에서 지금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설득하려면 모든 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해 있는데 너도 여기 들어와서 동참하고 그 대신에 너희들 제재 풀어주고 어떻게 하자”고 딜을 해야죠.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앞으로 1년 안에 되건 2년 안에 되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란 핵협정은 이란도 유럽 나라들이 앞장서고 미국이 그 뒤에 들어가서 백업을 해서 이란 핵협상을 만들어낸 것이 폐기 10년 프로그램입니다. 1~2년 안에 없애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3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트럼프가 “야, 이란이 잘 안 지키고 있으니까 핵협상 사인한 거 무효야!” 그러면서 깨버린 상황인데 그것도 다시 협상을 하겠지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다음 문제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핵 폐기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한 10년에 걸친 긴 프로세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북한을 핵 협상 안으로 불러들이고 딜을 하면서 폐기하는 과정이 불가피합니다. 그게 없으면 국제사회에 끊임없는 긴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현철 북핵문제 해결에 조급해하기보다는 꾸준하고 일관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현 그럼 핵문제를 해결하면 통일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한반도 통일은 주변을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강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조선시대부터 한반도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국이 한반도 통일에 무관한 게 아니에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우리의 통일에 대해서 동의 내지 묵인해야 통일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가 ‘나는 안 돼, 한반도 통일은 난 못 봐줘’라고 하면 통일이 되기 어렵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될 때도 미국과 러시아와 인근에 있는 프랑스와 영국이 동의 내지는 묵인을 하면서 동서독이 통일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한테 절대로 불리하지 않고 득이 될 거다, 중국한테도 절대 불리하지 않고 득이 될 거다, 러시아, 일본에도 똑같이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어려운 겁니다.

공공외교가 됐건, 나라 간의 제도권 외교가 됐건, 외교는 똑같은 문건이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각 나라의 입맛에 맞는 문건을 만들어 다니면서 우리가 통일이 돼도 당신들한테 절대로 손해가 안 되고 이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주변국을 설득시키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북한에 어떤 형식이든지 변화의 물꼬를 터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가 어렵거든요, 자

유, 민주, 개방 등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변화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압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이는 나라들이 독재국가거나 전제국가거나 왕권국가들이거나 이런 국가들이었어요. 이름만 들어보면 알죠. 필리핀의 마르코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리비아의 카다피 등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은 민주화되고 자유화된 나라들이 됐어요.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어떻게 바뀌느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대체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쯤 되면 민주화하자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나라마다 국민소득이 조금 다른 시기에 민주화가 일어나지만, 대체로 3,000달러 전후가 되면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먹고사는 문제가 대체로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던 1988년에 1인당 국민소득 3,200달러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시기였고 올림픽은 어느 나라든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 즈음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에서 1,500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을 하면 앞으로 2,500달러에서 3,500달러 정도가 되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우리도 좀 자유롭게 살자”, “우리 좀 민주적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꼭 그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

금 북한 주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북한 어린이들이나 미래를 위해서 먹고사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을 좀 개방경제로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자립기반이나 성장기반을 우리가 백업해주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UN에서 하고 있는 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라고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빈민국을 인도적인 입장에서 지원하여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북한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어려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북한이 문을 여는 순간 혹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

표 3-7 경제 성장과 민주화 관계

1인당 국민소득 3천~5천 달러 수준이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으로 민주화, 자유화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분출되는 시기임

구분	시기	1인당 명목 GDP(PPP)	내용
필리핀	1986년	\$ 590(\$1,471)	아키노 축출
대한민국	1987년	\$3,444(\$5,551)	대통령 직접선거
대만	1987년	\$5,240(\$7,350)	계엄령 해제
루마니아	1989년	\$2,293(\$5,722)	차우세스쿠 축출
체코슬로바키아*	1990년	\$3,545(\$12,314)	자유선거 실시
인도네시아	2004년	\$1,177(\$2,978)	대통령 직접선거
미얀마	2011년	\$ 824(\$1,324)	민간정부 탄생
리비아	2011년	\$5,513(\$5,903)	카다피 축출
이집트	2011년	\$2,930(\$6,454)	무바라크 축출
튀니지	2011년	\$4,334(\$9,359)	벨 아미 축출

*체코슬로바키아는 1990년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로 나누어졌으나, 1인당 명목 GDP는 동일
출처: IMF, World Bank

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개발모델에 대해 유럽식 특히 러시아식으로 개방할건지, 동독처럼 무너지고 말건지, 아니면 중국처럼 개방할건지, 베트남처럼 개방할건지 등을 이야기 하죠.

베트남처럼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시장을 개방해서 먹고살면 되지 않느냐. 베트남은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거의 3,000달러 가까이 되는데 베트남에 가보면 활발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은 아직 개방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핵무기를 내려놓고 개방을 했을 때 과연 내 목숨과 내 안위가, 국가의 체제가 안정될 건가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여현철 북한하고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고, 우리가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말도 많이 달라졌고 생각도 많이 다르고 행동하는 패턴도 많이 다릅니다. 서로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노력들과 더불어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도 이제는 같이 통합하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질성으로 인한 동질성 회복이 어렵다는 전제를 계속 말씀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지원 또는 협력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주현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유아, 산모, 아이들과 관련된 영양식품, 비타민 등 의약품 등인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회담을 빨리 열어야 합니다. 영유아기에 영양결핍으로 인

한 브레인 대미지를 받으면, 나중에 성년이 되었을 때 제대로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고, 두 나라가 합쳐졌을 때 사회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자립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통일이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이들을 위한 비타민, 영양제 지원 사업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파트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교류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그런 관계를 벗어나서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은 국내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나 주변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포들의 지원, 그 사람들과의 화해, 우리와 같은 이웃으로 같은 친구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3만 명 정도의 탈북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시키지 못한다면, 통일이 됐을 때 2,400만 명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베이스를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3만 명의 탈북민을 우리 국민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2,400만 명 하고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탈북민도 국민으로 통합하는 노력을 사회적으로 전개하면서 그 과정에서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현철 오늘 대한민국 최고 경제학자가 바라본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첫 번째는 민족의 동질성, 두 번째는 회복과 치유, 세 번째는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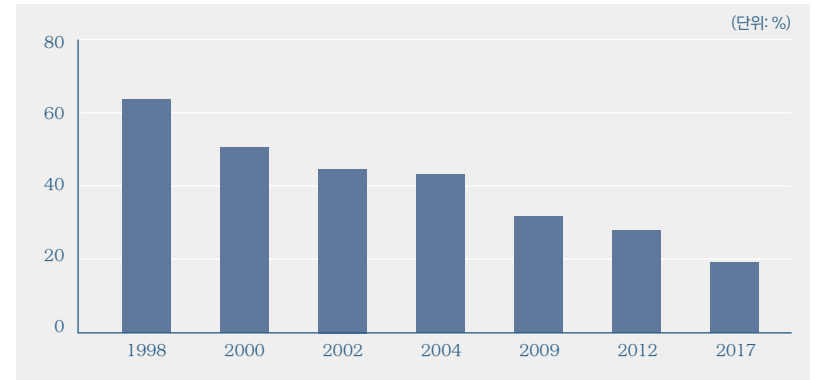
한반도가 됐을 때 경제적으로 피스코리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한 시간 내에 아주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영유아, 산모들한테 우리 의약품 등 인도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브레인 대미지를 극복하고 예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현 산모는 열 달 동안 임신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만큼 산모도 있는 거죠. 1년에 태어나는 애가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되고 임신한 사람도 그 정도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게 헤모글로빈, 철분 그다음에 비타민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아이들이 브레인 대미지를 받습니다. 태어난 애들이 처음에 충분한 영양소나 비타민, 요오드, 철분 등을 공급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브레인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의 어린이들 중에 15%에서 20% 가까이 국제 식량기구에서 평가하는 영양실조에 해당하는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영양제와 식량을 공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현철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통일 그러면 독일 통일을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2020년 10월이 되면 독일이 통일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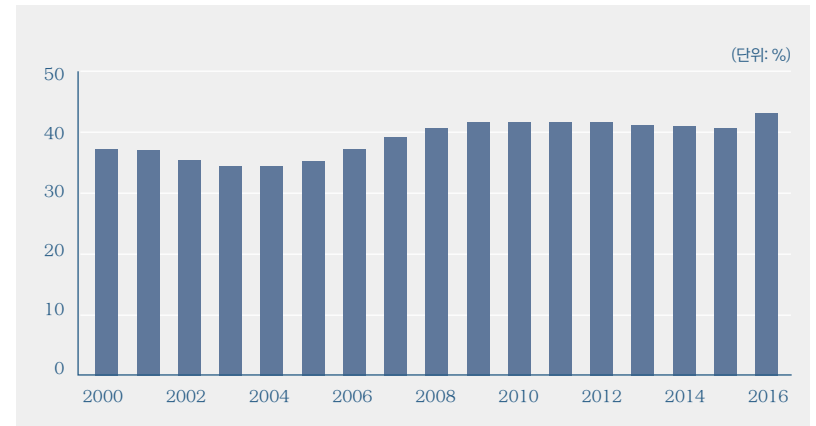
그림 3-6 북한 5세 미만 아동 만성 영양실조 비율



2000	2002	2004	2009	2012	2017
51%	44.7%	43.1%	32.4%	27.9%	19.1%

출처: 대북지원정보시스템, UNICEF DATA, KOREA DPR 2017 MICS Survey Findings Report (검색: 2020.08.21.)

그림 3-7 북한 전체 인구 대비 영양부족 인구 비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41.8%	41.9%	41.7%	41.4%	41%	40.8%	43.4%

출처: 대북지원정보시스템, World Bank Data (검색: 2020.08.21.)

지 30주년이 됩니다. 당시 분단된 독일은 통일 이전 시기부터 종교 간의 교류협력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험담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현 동독의 경우는 유럽이라서 북한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북한은 종교라는 게 그냥 명목상의 종교만 존재합니다. 말로는 조선기독교총연맹도 있고, 불교단체도 있긴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를 향해 만들어진 것 같고, 실제로 자유로운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이 이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 기독교단체나 불교단체나 이런 단체들의 이름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북한을 돕고 있는 여러 NGO 단체들이 대부분 다 종교단체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이런 의약품이나 필요 영양, 의료 등 이런 것들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적십자사나 국가 간의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종교단체들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볼 때 적대 내지 경계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36% 있다 그랬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영양소를 보내주자, 미타민을 주자, 산모들을 도와주자 하면, 지금 휴전상태고 전쟁상태인데 뭘 주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가슴 속으로 소화시키고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통일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

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면 통일 이야기가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통일이라는 이슈는 아까 말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을 이해하면 평화통일의 길이 보인다

대담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북한연구학회 회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의 원장이다. 《북한이해의 길잡이》, 《한국 통일 문제의 현주소》,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과 변화전망》 등 통일·북한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하였다.



여현철 오늘은 ‘한반도 위기 구조와 평화 유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민대학교 전현준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현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위기 구조와 평화 유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협상전략은 매우 복잡합니다. 대학원에서는 한 학기 내내 이 주제로 강의를 해도 부족합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하니 북한의 협상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북한은 무엇이고,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은 사실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 3조 영토 조항에는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우리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빠져나온 분들이 남한에 오게 되면 바로 주민등록을 받고 우리 국민이 되는 겁니다. 다만 북한 내에서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 권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대신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땅에 오시면 우리 국민으로 따뜻하게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아니에요. 요즘 탈북자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우리 국민이고 또 우리 동포이지 않습니까?

여현철 우리 학생들도 모두 머리로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탈북민, 그에 앞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에 따른 행동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현준 우리는 1991년 12월에 남북한이 합의하여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 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냐 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별개의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남북관계는 특수 관계라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어떤 특수 관계이냐?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

성되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차피 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휴전선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일을 해야 되는 대상이긴 하지만 지금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완전히 국가가 다른 나라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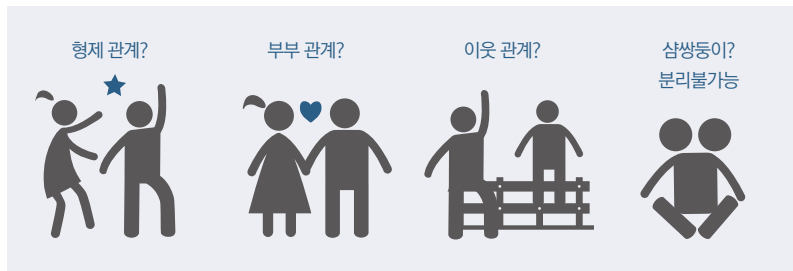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제시해봤습니다. 맨 왼쪽 그림은 남매 또는 형제 관계입니다. 부모가 같고 피를 나눈 형제 관계, 남매 관계입니다. 근데 남매 관계가 아무리 가깝다 치더라도 헤어져서 살고 떨어져서 살고 평생 안 만나고 살 수도 있어요. 형제인데, 어떤 이유로 해서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또 조금 웃자고 얘기하자면 형제가 부모님 재산 때문에 싸웠어요. 부모님 제사 날에도 안 나타나고,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안 나타나고, 일체 안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형제 간에 생전 안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그럴 수 없어요. 필요하면 형제 간도 안 보고 살 수 있지만, 남북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다음 그림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는 정말 가까운 사이입니

다. 결혼식에서 결혼서약을 하잖아요. 흔한 말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고, 절대 헤어지지 않고 살기로요. 주례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 때 “예”라고 대답을 해야 결혼이 성립 돼요. 대답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답을 했어요. 물론 신혼 초에는 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살다보면 온갖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고 헤어져요. 아무리 사랑 했던 사이라 할지라도 어떤 연유로 헤어져서 원수가 되어 절대 만날 수가 없는, 안 만나버리는, 어떤 상황에도 안 나타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부부 관계예요. 근데 남북관계는 그럴 수 없어요. 안 보고 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 관계입니다. 저도 가까운 이웃들이 있어서 가끔 주말에 만나서 밥도 먹고 사이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웃이 원수가 되고 싸우고 뭐 그런 경우도 종종 봤어요. 그렇게 친한 이웃인데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더니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이웃이라 할지라도 안 보고 살 수 있고 원수지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림 4-1 북한과 우리의 관계 정의



마지막은 삼쌍둥이에요. 현대의학의 발달로 삼쌍둥이는 수술을 통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붙어있는 삼쌍둥이를 분리해서 별개의 인간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남북관계는 어떤가요? 수술을 해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는 남한을 딱 떼어서 다른 쪽으로 옮기던지, 북한을 딱 떼어서 다른 쪽으로 옮기기 전에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야 돼요. “남북관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형제 관계, 부부 관계 및 이웃 관계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라고 대답하지만 그런 관계들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남북관계는 지정학적으로 붙어있어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될

그림 4-2 남북한 지도. 남북한은 이혼이나 분리 불가능



것인가, 북한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남북한은 동포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싸웠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북한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현철 남북한은 동포이면서 가족, 이웃, 형제를 넘어서 물리적으로 절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전현준 그러면 그런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6·25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미운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동포로 같이 살아가야 될 그런 대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4조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에요. 분단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합니다.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방식은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아니고요. 통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통일합시다. 전쟁이든 뭐든 해서 빨리 해야지요’ 이 건 안 된다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전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평화적으로 통일은 하되 사회주의식으로, 공산주의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적으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계획하고 이를 추진해야 됩니다. 헌법 66조 3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인 거죠. 무력통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북한하고 맨날 싸우자고 주장하고 틈만 있으면 전쟁이라도 해서 통일하자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북한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헌법정신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 1990년 8월에 제정됐는데 이 법안에도 지금까지의 내용이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을 적대관계의 일방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교류와 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적으로 봐야 된다, 타도 대상이다, 또는 김정은과 주민은 분리를 해야 된다, 김정은은 타도해야 되지만 주민은 또 우리 동포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이 한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게 통일전선전술이에요. 대중들은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고 대통령이나 지배계층은

타도해야 한다는 통일전선전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먹혀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 집권자인데 그 집권자는 타도를 해야 되지만, 주민은 보호해야 되고 이런 건 어렵단 말이에요. 김정은과 주민을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 주민들과 지도계층들의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약화시킴으로써 평화적인 통일로 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여현철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별개로 할 수 없다는 말씀, 우리나라에 비유하니 정말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가 이렇게 힘들군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처럼 어려운 통일을 과연 하고 싶어 할까요?

전현준 통일연구원의 2019년도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약 66%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 조사기간: 2019년 4월 5일-4월 25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3.1\%$). 사실 통일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는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통일하지 맙시다. 따로따로 삽시다'라고 한다면 통일 관련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국민 대다수가 통일을 반대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일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나 북한

에 대한 인식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이 무력통일을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평화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북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여현철 북한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로 아직 우리 국민의 과반 이상이 통일을 지지한다는 점이 안심이 되면서도, 그 인식이 떨어지지 않게,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지지 아래, 헌법에도 명시한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북한이 오직 도발과 무력증강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북한도 나름의 목표를 위한 협상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현준 북한의 협상전략은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하기에 핵문제에 집중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과 사이 좋게 지내고 싶은데 북한이 핵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프다, 나는 좋게 지내고 싶고 함께 잘 먹고 잘사는 위대한 한민족을 만들고 싶은데 북한이 자꾸 저렇게 똥짓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싫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안보가 튼튼해요. 한미동맹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핵이 없지만 미국은 전략 핵무기를 몇 천 개 이상 가지고 있고, 조그만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무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안보가 튼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자주국방을 내걸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많이 증강해왔고, 특히 핵무기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6·25 전쟁 때는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원자탄을 터뜨리려고 했거든요. 미국은 일본을 패망시킬 때 최초로 원자폭탄을 사용한 적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미국 외에 다른 어떤 나라도 원자폭탄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1945년 8월 6일과 9일, 두 번에 걸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참전하니까 원자폭탄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맥아더 장군이 핵 사용을 많이 주장했어요.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도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처음에는 북한에 대한 원자폭탄 사용을 고려했지만 '만약 원자폭탄을 쓰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원자폭탄 사용을 취소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중공군은 이미 참전해 있으니 그렇다 쳐도 소련까지 참전하게 되잖아요? '소련까지 합세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게 되면 이거야말로 대재앙이다.' 이런 생각에서 참았는데 그 소식을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어요. '미국이 원자폭탄 사용도 고려한다'는 소식이 보도되니 당시에 소련도 알게 되고, 중국도 알고, 그 정보가 김일성 귀에도 들어갔어요. '아... 원자폭탄을 쓴다고?' 다행히 안 썼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김일성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미국이 원자폭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들어갑니다. 1958년부터 미국이 규모가 크지 않은 핵무기인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럽에도 배치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깜짝 놀라서 핵개발에 들어가게 되고, 김일성종합대학의 물리학과 학생들을 당시 소련으로 유학 보내서 핵무기 만드는 법을 배워오도록 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을 비밀로 했고 미국이나 서방세계도 1980년대 후반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북한은 초기에는 핵무기 개발을 전면 부인하다가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부터 미국과 본격적인 핵무기 싸움

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안전 보장을 받으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는 체제안전 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현철 북한 핵문제의 역사라고 해야 할지 그 기원이 참으로 오래되었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존을 걸고 벌인 국가적 대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전현준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의미의 체제안전 보장을 받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2년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네 번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했고, 총 여섯 번의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등장해서 ‘미국이 체제안전 보장을 완전히 해주기 전에는 핵문제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북한을 잘 먹고 잘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최초의 국가전략은 2013년에 채택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에요. 핵도 만들고, 경제도 부흥시키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정책을 제시했죠. 병진노선을 채택한 이후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했

고 핵무기를 완성했죠. 이후 북한은 핵은 이제 완성했으니 앞으로는 먹는 문제와 민생문제, 즉 인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겠다고, 2018년 4월 20일에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경제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미국과의 대화와 남한과의 대화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여러 번 천명을 해요. ‘난 경제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 빨리 경제제재 좀 해제해 달라’고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정치군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면, 나는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인민들을 잘 먹고 잘살게 만들어야 돼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배가 고프면 점점 졸라매야 되잖아요. 배가 부르면 허리띠를 점점 좀 풀고, 그래서 나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고, 허리띠 풀도록 만들 겁니다.’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천명을 했기 때문에 노선을 바꿨던 겁니다.

그 결과 2018년에 3차례에 걸쳐서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2018년에서 2019년간 두 번에 걸쳐서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과 협상이 잘 안 됐어요.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안타깝죠.

이후 저는 북한이 바로 또 도발할 줄 알았어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에라 모르겠다. 핵실험 한 번 더 하자’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하는 얘기가 뭐였

냐면, ‘만약에 2019년 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선택법’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나도 생각이 있어. 새로운 길을 갈 거야. 미국이 우리말을 안 들어 주면 새로운 길을 갈 거야’라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선택법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북한이 원하는 선택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계별로 북한 영변 핵시설을 다 없애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 경제제재를 해제해준다든가, 수교를 해준다든가 하는,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새로운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군사도발 할 거다, 아니다 중국 쪽으로 붙어버릴 거다, 어떤 사람은 자력갱생할 거다, 아니다 꼼짝도 않고 때를 기다리는 태도를 취할 거다. 여러 가지 일을 상상했는데 현재까지는 대충 맞은 것이 ‘미국 제재 해제에 난 관심 없어. 중국이 도와주는 거? 관심 없어, 우리는 우리식대로 그냥 살 거야’인 겁니다. 예상이 조금은 맞았어요. 2019년 12월 31일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뭐가 결정됐냐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전’입니다.

자력갱생.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만약에 자력갱생이 잘 되어서 힘이 키워지면 정면 돌파 하겠다. 군사적이 되었던 경제적인 방법으로 하든 정면 돌파 하겠다. 우회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핵실험을 한다든가 또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을 발사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력갱생

을 통한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앞서 얘기한 새로운 길인데 두고 봐야죠. 정말 자력갱생만 하고 가만히 있을지 말입니다. 계속해서 제재를 받느라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북한은 외부 제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외화벌이도 못하지, 자기들 물자도 못 팔지, 그러니까 돈이 고갈되잖아요.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참고 있을 것인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여현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돈을 꽉 움켜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정면 돌파전과 같은 구호는 북한만이 제시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어떠한 전략을 펼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해야 하는데요. 그럼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한이 취한 행동들을 살펴보면 되겠지요?



사진 4-1
북한 평양시 대동강변에 위치한 미래과학자거리
출처: 연합뉴스

전현준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경제특구도 만들고, 나름대로 건설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위 사진이 과학자 거리입니다. 과학자들이 사는 과학자 거리인데, 어마어마하게 건설했습니다. 북한에 ‘돈주(신흥부자)’도 생기고, 시장^{장마당}도 생기고, 종합시장이 500~600개, 조그마한 매대까지 합치면 수만 개가 생겼습니다. 돈주는 많게는 몇 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의 맛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면 최고,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마인드, 자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회주의에서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고 너나 할 것 없이 장사를 해야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동당도 그렇고, 김정은도 주민들의 그러한 의사와 그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종합시장도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도 택시가 있습니다. 주로 평양에 있겠지만 영업용 택시 같은 것들이 3~4천 대 정도 있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한류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드라마나 심지어 화장품, 내의^{속옷}까지요. 특히 여성들은 남한의 화장품과 내의 같은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한의 한류들이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굉장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변하고 있습

니다. 북한에서 평양 아리랑 핸드폰을 만들었고 앱도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되는 겁니다. 북한도 문자 다 보내고, 사진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핵은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먹고 잘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북한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건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현철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상은 종종 접할 때마다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본주의의 유입과 신문물의 도입은 결국 북한이 개방적인 사회로 변모하는 첫걸음일 수 있겠지요. 북한이 핵무기만 포기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재도 해제되고 어마어마한 자본이 유입될 것인데, 북한은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전현준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첫째 안보 때문이고, 둘째는 그 핵을 매개로 미국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경제제재를 해제해볼까 하는 전략인 거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야, 재들 핵 없앤다고 그러고서는 몇 개 정도는 어디 감추어놓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북한을 못 믿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검증을 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북한을 샅샅이 뒤져서 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할 때만 제재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반면에 북한은 ‘무슨 소리야.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먼저 핵을 다 포기하면 그때 우리 공격하려고? 리비아도 그

랬잖아. 이라크도 그랬잖아. 핵이 없으니까 공격한 거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불신이 양국 간에 깊이 깔려 있기 때문에 서로의 말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를 하려고 했었죠.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양측을 다니면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더 구체적인 북핵 문제, 북미관계 등에 진전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올해(2020년)는 지난 1월 7일도 그랬고, 5월 10일 취임 3주년 기념식 때도 그랬고,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자' 그렇게 선언은 해놨어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핵문제 해결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불신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핵문제가 쉽지 않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건가, 구경만 하고 있을 건가? 아니죠. 만약의 경우에 정말 북미 간에 어떤 이유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화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 후과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후과가 커요.

여현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인명피해를 예고하는 전쟁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하겠습니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최근 동북아시아 지

역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첨예화로 인한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전현준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내지는 패권전쟁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고, 중국은 반발하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혹시 전쟁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이 싸우는 것을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의 이름을 빌려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지금 패권 국가인데 중국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 녀석들 봐라? 내가 왕인데, 내 왕권에 도전을 해? 이 녀석! 한방 먹어!' 하고 빵 때리면 전쟁이 납니다.

여현철 미국은 북핵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현준 북한에는 만약에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면 그 핵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북한은 미국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위협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도 빨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으로 미국을 공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말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확산시키지 않는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은 했지만 북한과 미국이 만나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무기는 인류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실제

로 쓰이는 것, 실제로 사용되는 건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결국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아서 회담을 하고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빨리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한반도는 칼날 위의 평화입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니 평화 같지만 위험한 평화입니다. 칼날 위의 평화. 여러분, 칼날 위에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작두 도사나 서 있는 거지, 보통 사람은 서 있지 못하죠. 위험하잖아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항구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위험한 평화입니다. 언제 이 평화가 깨질지 몰라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게 좀 어렵습니다만 하루속히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거죠.

여현철 종전선언이 한반도나 동북아 정세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만 선언만으로 끝나는 것 이상이겠지요?

전현준 지금 한반도는 정전 상태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 이후 지금 67년이 되었어요. 사실상 전쟁이 없는, 어떻게 보면 분단이 고착화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종전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습니다'라는 선언을 빨리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다,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해야 합니다. 항구적인 평화가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만 사실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만 전쟁하지 말자고 해서 전쟁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도 있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있잖아요. 주변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간에도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다 같이 맺어야 됩니다. 여섯 나라가 함께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해야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아이디어인데, '휴전선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자. 서해안 쪽으로 그리고 동해안 쪽으로 남북한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자'고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구상 단계죠. 그러나 장치는 이렇게 가야 할 겁니다. 그래야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올 거리는 겁니다.

당장은 코로나19 이후에 남북 보건협력부터 좀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분야입니다만 우리 국민들도 좀 긍정적인 거 같습니다. 보건 협력에 관한 최근 여론 조사는 53.4%가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해가 많거든요. 남북한 간에는 돼지열병도 북한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빨리 이런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협력을 해서 남북한 간의 신뢰가 쌓이면 북한이 조금은 유연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현철 하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준 지금은 너무할 정도로 북한이 무관심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이 독자적으로 뭔가 했으면 좋겠어. 개성공단도 팍 열고 말이야. 금강산 관광도 팍 열고 그래야 하는데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거죠.
우리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게 뭘까요? ‘남북이 협력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뭘니까?’ 국민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통일해서 무슨 이익이 있어요? 남북한이 힘을 합친들 우리가 손해지 무슨 이익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면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이 싸우고 아웅다웅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남북한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통일을 하게 되면 얻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현철 통일에 대해, 특히 통일비용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고, 이분들은 그 비용이 걱정되어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걱정에 근거가 있을까요?

전현준 우리 국민들이 또 의심을 갖는 게 뭐냐 하면 통일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세금 많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금융기구, 국제사회, 돈 많은 짐 로저스 등이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거 아납니까?

그다음, 북한은 자원 매장량이 엄청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7,000조 원 내지는 1경 정도의 자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걸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개발하는 데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겠죠? 우리 기업도 그렇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도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투자할 생각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걸로 해서 통일비용이 충당되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 정치·경제·군사·외교 모든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이 돌아옵니다. 정치적으로는 전쟁 가능성이 확 낮아지지 않습니까.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전쟁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늘 불안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었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불안심리만 없애도 엄청난 이익입니다. 그런 불안심리 때문에 해외투자가나 해외 관광객이 안 들어옵니다.

이를테면 인천 송도 같은 곳을 국제도시로 개발해봤잖아요. 근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거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휴전선이 코앞이니까요. 언제 북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북 협력을 통해서 전쟁 가능성이 없어지면 그런 도시들도 커질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업들, 투자자들이 한반도로 올 거란 얘기예요.

군사비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올해만 해도 50조

원 이상 군사비로 쓰는데 거기서 미국의 첨단무기를 구입하는데 4조 내지 5조원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어요. 무기 구입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다는 얘 기초.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일되면 북한만 이익이 있고, 우리는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5만 4천 명 북한 근로자들에게 주는 연간 임금이 1억 달러라고 해요.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입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의 이윤이 그 10배가 나와요. 싼 임금이잖아요. 한 달에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는 거죠. 20만 원 월급이 어디에 있어요. 저 아프리카나 가면 몰라도, 동남아까지 다 둘러봐도 그렇게 싼 임금이 없어요.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익이에요.

왜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가

여현철 통일이 정치·경제·군사·외교적으로 비용 대비 이익이 더욱, 아니 훨씬 많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싸우지 않는 것, 자체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현준 ‘피로스의 승리(패전이나 다름없는 의미 없는 승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전쟁하면 당연히 이깁니다. 죽기 살기

로 싸우면 못 이기겠습니까? 한미연합 전력이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러한 승리를 뭐라고 하나면 처절한 대가를 치른 승리라고 해요.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얘 기초요. 피로스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왕인데, 이 사람이 맹장이었어요. 로마와 싸워서 두 번 이상 이겼어요. 로마가 한창 클 때 로마를 이겼어요. 이기긴 했는데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스 군사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결국은 그로 인해 그리스는 로마에게 망합니다. 승리를 거뒀지만 너무 처절한 피해가 나는 승리죠. 이걸 바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싸우면 이깁니다. 근데 우리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수도권에 포탄이 몇 방 떨어진다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당장 인터넷도 다 마비되고 지하철 마비되고 말이죠. 남북한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만약에 망해버리면, 남북한이 동시에 망하면 이게 누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겠습니까?

손자병법을 보면 백전백승은 최선이 아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나와 있어요. 뭐 하러 싸워서 이겨요, 안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보기 싫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바보 같은 짓이 아니고 결국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보다 더 민주화된 사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6·25 전쟁을 일으킨 그 원수들하고 어떻게 같이 삽니까? 어떻게 교류·협력하고 삽니까?’라고 하는데 큰 구상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원수면 영원한 원수인가요? 국제사회로 보면 안 그렇습

니다. 당장 우리나라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에 일본과 수교했어요. 전략적인 선택이죠. 일본과 협력을 해서 우선 근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들여왔어요. 미국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일본과 좋게 지내라 하고요. 미국은 일본을 키워 미국과 일본의 힘을 합해서 소련 등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좀 좋게 지내라 그렇게 계속 압박을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한미동맹이라는 거대 전략을 유지하면서 근대화에 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과 수교를 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바람에 미군 20만 명 이상이 태평양전쟁에서 죽었어요. 미국과 일본은 따지고 보면 원수인데 지금은 가장 가까운 동맹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을 봉쇄하고 지금은 러시아인 옛날 소련을 봉쇄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과 힘을 합친 겁니다. 원수와 같이 지내는 겁니다. 이게 국제정치입니다.

미국과 베트남도 1995년에 수교했어요. 베트남은 미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베트남을 통해서 또 중국을 봉쇄하고, 베트남과 중국은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을 이용해서 동남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수와 손을 잡고 수교를 했어요. 또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했다고 해서 베트남 주민들이 마음속으로 미국을 진정으로 용서할까요? 용서하지 않지만 필요한 거예요.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

려는 겁니다. 그게 전략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요. 중일전쟁 때 모든 비행기를 동원해서 중국 전 국토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수교해서 살아요? 그런데 수교해서 일본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연방이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는 지금 한 나라입니다. 연방 형식의 한 나라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700년 동안 앙숙이었죠. 만약에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축구 경기를 하면 스코틀랜드는 어디를 응원할 것 같아요? 같은 나라니까 잉글랜드를 응원해야 되는데 프랑스를 응원해요. 만약 프랑스가 이기면 만세 부르고 축제 분위기에 젖어요. 1300년대에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많이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원수예요. 그런데도 같은 나라에 살아요. 전략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제정치는 그런 것입니다.

여현철 국제사회에서는 정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군요. 이러한 악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 환경에서 한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현준 그럼 남북한이 좋아지는 것이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이익이냐고 또 따질 거 아닙니까. 남북한이 힘을 합치면 주변국이 함부로 못해요. 정말 통일까지 하면 우리를 우습게 못 봐요. 남북한이 힘을 합치면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통일되면 한민

족의 위상이 높아지는 전략적 이익이 있습니다. 전략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커지는 걸 안 바라는 거예요. 커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익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커지는 것을 주변국이 반대하는 걸 보면 ‘아 우리가 커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한 관계가 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한 10년 해봤는데 그다음부터는 끊어졌어요. 10년으로는 안 돼요. 정말 30년, 40년, 50년 해도 될동말동하는데 10년 해보고 아무 변화가 없다,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을 변화시키고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죠.

이것으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방대한 양을 빨리 빨리 말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평화통일이고 평화 유지라는 것입니다.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북한과 화해·협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 우리의 경제 번영을 위해서라도 꼭 남북한 화해협력은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특강





통일 관점에서 북한을 알자

대담자 **고수석**

전 중앙일보 기자, JTBC 남북교류추진단 사무국장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통일은 한국의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통일·북한 분야를 접하게 됐고 20여 년 동안 평양·개성·금강산 등에서 현장 연구와 다양한 북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을 움직인 30인》, 《김정일과 IT혁명》 등의 저서를 출간했고 <중앙일보>, <중앙SUNDAY>에 '고수석의 대동강 생생 토크', '평양 탐구생활' 등 기획연재물을 게재했다.

여현철 북한을 직접 가보고 북한 주민을 직접 만나 볼 수 없는 현재의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접할 수 있는 창구는 언론입니다. 그 언론보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면 언론의 창 너머 북한의 실체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북한에 대한 보도를 실제로 하셨고 또 연구하신 고수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고수석 박사님은 <중앙일보> 기자로 시작해 JTBC 남북교류추진단 사무국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박사님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수석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통일 과

정에서의 언론의 역할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재직하며 18년 동안 통일·북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평양에 다섯 번 정도 다녀왔고 2년간 JTBC에서 남북 방송교류를 맡았습니다.

여현철 사실상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든 북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는 언론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고수석 여러분들이 접하는 북한이나 통일 정보의 플랫폼은 주로 언론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통일연구원이나 통일교육원 같은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북한 관련 정보를 접하기도 하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뉴스를 통해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접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북한 뉴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북한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접하는 북한의 소식이나 가치관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언론 외에 북한 뉴스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기구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물론 북한의 역사에 관한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책을 보거나 인터넷 상에서 접해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 뉴스와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곳은 정부기관입니다. 특히 통일부 및 통일교육원 등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북한 관련 뉴스나 북한 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 뉴스를 많이 제공하는 곳이 대북지원단체입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지원단체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대북지원단체들이 북한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놨죠. 그걸 통해서 북한 소식을 접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종교단체들이 대북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많이 했는데 그런 단체를 통해서 북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언론이 정부기관이나 대북지원단체, 종교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각자 자기 회사에 맞게 재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전달한 북한 관련 정보를 여러분들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국제연구소 홈페이지에도 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가면 동영상도 포함해 여러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북한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현철 언론 이외에도 다양한 창구가 있군요. 하지만 역시 드는 생각은 정부기관의 공식자료는 접근은 용이하나 비교적 난이도가

있고, 대북단체나 종교단체의 뉴스는 편향되어 있거나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북한에 대한 언론보도는 쉽게 접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공신력을 갖추었다고 믿어져 왔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믿음과는 다르게 오보라던가 가짜뉴스라던가 이런 부분이 유독 북한 관련한 뉴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수석 과연 북한 뉴스는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까요? 요즘 보면 탈북민들이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할 때마다 어떤 것은 사실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고, 헛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 뉴스를 얼마나 믿을 만한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죽었냐, 살았냐를 가지고 4월 말에 한참 소동이 있었습니다. CNN이 크게 보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김정은이 나타납니다. 그동안의 뉴스를 비웃듯이 김정은이 등장해 견제함을 과시하기 때문에 많은 뉴스들이, 특히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다는 CNN조차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북한 뉴스를 얼마만큼 믿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여현철 북한 관련 뉴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다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고수석 북한 뉴스가 생성되는 루트를 보면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서 북한 뉴스를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종합편성^{종합편}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나와서 북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 뉴스를 접할 수 있지요.

두 번째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 출장을 나온 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사가 이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이들을 취재한 기자들이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저도 기자로서 20년 가량 일을 하는 동안, 특히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여럿 만났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최근 북한의 돌아가는 이야기들, 생생한 뉴스를 전해 듣고 보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북한 뉴스의 중요한 소스^{Source}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방북한 재외교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미국, 캐나다, 유럽에 있는 한국교포들은 개인적인 목적이나 직업적인 목적으로 방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방북자 중 저와 같은 기자들이 평양이나 북한의 어떤 지역에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 최근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각종 매체를 통해 독자들한테 소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북중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 지?’ 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휴대폰을 가진 북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는 현재 휴대폰이 400만 대 정도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중 접경지역에는 주로 중국을 왕래하는 북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북한 주민들 중에서 중국 휴대폰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간 사람들은 중국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에서 휴대폰으로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도 합니다. 즉 우리는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북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루트를 중심으로 북한의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여현철 현대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폐쇄국가인 북한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외국으로 출장 나온 북한 주민, 방북한 재외교포들, 북-중 접경지역의 북한 주민들이라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뉴스 자료들이 모두 간접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고수석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맞느냐?’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기자로 취재할 때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대신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항상 내부적으로 국내의 여러 정보기관들의 검증은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 긴밀한 정보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출장 나온 북한 사람들, 방북한 재외교포, 이런 분들을 만나서 북한 관련 소식을 접하지만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의심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현철 기자님들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군요. 그렇다면 결국 북한의 폐쇄성과 정보의 간접성 때문에 오보와 가짜뉴스가 생성되는 것인가요?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고수석 조금 전 말씀드린 4가지 과정으로 북한 뉴스를 접하고 우리가 과연 통일을 어떻게 하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는데요. CNN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독설’이 나중에 가짜뉴스로 밝혀졌잖아요. 소스를 통해서 북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위험이 높은 이유는 크게 5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폐쇄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들은 이야기를 북한 내에서 우리가 확인해볼 길이 없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중국에서 만난 북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던데...”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면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 정보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에는 한국 언론사의 해외특파원이 체류하거나 한국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죠. 뉴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성입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한국 대사관도 없고 한국 언론이 들어가서 주재하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북한의 평양에는 중국, 러시아, 동유럽 국가들의 언론사들이 지사를 두고 특파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의 경우 일부 언론사의 지사가 있긴 합니다만 특파원이 상주하진 않아요. 미국의 CNN, 일본의 교도통신, 이 두 회사도 북한에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실만 두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나면 중국에 있는 특파원들이 평양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평양 직원과 팩스로 연결하면서 서로의 업무를 교환합니다.

왜 이분들이 상주를 안 하는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평양에 기자가 상주하더라도 평양은 마음대로 취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취재는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재라는 것은 자기 맘대로 가서 솔직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평양에서는 모든 취재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기자들이 갑갑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무실 운영 경비를 내고 일 년에 한두 번 CNN이나 교도통신의 기자들이 평양에 들어가지만 상주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평양에 상주하는 중국 신화통신사 평양 특파원을 했던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특파원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냐? 그 사람들도 평양

에서 근무할 때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CNN이나 교도통신보다는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조금 더 많을 뿐이지요. 즉 나라를 막론하고 북한의 평양에서 기자로 근무하는 것은 몹시 갑갑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북한의 심각한 폐쇄성으로 인해 자본주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 국가 언론사들도 취재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답답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 북한 대사관이 없어요. 만약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한 중국대사관에 확인해볼 수가 있죠. 미국에서 일이 벌어지면 주한 미국대사관에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확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쪽 사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엔 아예 북한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짜 뉴스가 생산되더라도 북한이 한국 언론에 확인해줄 수가 없죠.

중국이나 미국, 유럽 국가의 한국 주재 대사관들은 한국 언론이 자국의 뉴스를 잘못 보도하거나 가짜뉴스가 나갔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연락해서 확인하거나 정정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한국에 대사관이 없고 특파원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 확인해볼 수 있는 소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언론사들이 통일부나 국가정보원에 북한 관련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죠. 그런데 이들 기관에 딜레마가 있어요. 북

한 관련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불편해합니다. 언론사가 확인을 요청해도 사실인지 아닌지 말하는 것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에서 벌어진 일을 확인해주는 게 맞지 않지요. 북한이 발표하지 않은 정보를 우리 정부가 알려주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감시받는 기분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 뉴스를 우리 정보기관에 물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않아요. 우리 정보기관이 중국과 미국 이야기들을 확인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공유되지 않는 북한 정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A기관과 B기관 사이에도 북한 정보는 공유가 잘 안 됩니다. 그 때문에 특히 사실 확인 부분에서는 더 어려운 사항이죠. 국내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북한 뉴스는 폐쇄성으로 인해 확인이 더 힘들기 때문에 공유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정보라면 공유를 하겠지만 '~카더라'는 뉴스가 엄청 많고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생산될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여현철 폐쇄성 이외에도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북한뉴스는 민감한 내용인지라 확인도 검증도 공유도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북한의 특성 이외에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고수석 언론사에서 일해온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기자들에게 환상적이면서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특종입니다. 특종 경쟁은 과열되어 있죠. 어느 정도 자기가 신뢰하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들었을 경우 일단 보도를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특종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확인하기보다는 일단 자기가 믿는 정보원들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CNN이 보도했던 김정은 위독설과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도 많습니다. 김일성 사망도 1986년에 특정 언론사가 보도했는데 실제로 사망한 해는 1994년이었습니다. 북한 가수 현송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는 2018년 한국에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으로 방문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2013년에 현송월이 죽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2014년에 건재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주요 인물의 사망 관련 기사는 이렇게 가짜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북한은 조금 시간차를 두고 사망 뉴스에 나왔던 그 당사자를 언론에 노출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길재경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한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뉴스가 2004년 나오는데요. 잠깐 뉴스를 보고 여러분에게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〇〇〇 뉴스입니다. 오늘 큰 뉴스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 총책임 길재경 부부장이 최근 미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김정일 총비서 서기실의 부부장인데 김정일 서기실은 우리의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합니다. 마약밀매와 위조지폐 발행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을 조성해온 인물입니다. △△△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일 총비서 서기실의 길재경 부부장이 얼마 전 다른 탈북자 2명과 함께 제 3국에서 미국에 망명을 요청했다고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길재경 부부장 일행은 현재 안전한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2003년 5월 17일 방송된 뉴스인데요. 실제로 그날 SBS, MBC, KBS 등 모든 방송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이틀 뒤에 오보로 밝혀집니다.

방송은 2003년 5월 17일이고요, 지금 보여주는 이 사진은 2003년 5월 19일자 <중앙일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중앙일보>에 실린 사진은 무덤에 있는 길재경의 얼굴입니다. 죽은 사람을 언론이 그 당시 망명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특종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사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뉴스는 방송사의 보도에 앞서 연합뉴스가 보도하면서 다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해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언론사들이 길재경의 사망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사진 5-1
2003년 5월 19일자
중앙일보 기사

요? 여러 곳에 확인해봤지만 결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중앙일보>의 정창현 기자가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찍어온 사진을 확인하고 이틀 뒤 보도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가짜뉴스로 판명 난 겁니다. 만약에 사진이 없으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이렇게 가짜뉴스 위험을 안고 보도하는 게 현실입니다. 앞에 언론사들이 잘못했다, 틀렸다 하기보다는 그만큼 북한 뉴스에 신뢰성, 사실성, 팩트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한 관련 뉴스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여현철 오보, 혹은 가짜뉴스의 사례와 그것이 반증되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정보기관의 정보 생산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점은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유된다는 점 같습니다. 사실 널리 퍼져나간 오보나 가짜뉴스의 경우 바로잡기도 어렵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보도로 인해 피로도가 쌓이고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전문가나 연구자, 학생들의 경우 이런 오보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막심할 텐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수석 학생들한테는 매우 중요하지요. 북한 뉴스 가운데 가짜뉴스 사례는 다들 앞에서 보았지만, 지금 학생들 중에는 앞으로 언론사에서 근무할 친구도 있을 거고 언론 관련 기관에 근무할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음의 몇 가지 점들은 학생들이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되지 않은 뉴스는 확인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 같은 선배들이 해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만 북한 뉴스나 북한 정보를 다루는 데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폐쇄성 때문에 신뢰성 있는 북한 관련 뉴스를 접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길재경이라는 사람의 사진처럼 증거를 좀 기다려보는 인

내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과열된 특종 경쟁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뉴스는 증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쉽지 않지만 교차 검증을 하는 겁니다. 모든 가짜뉴스의 원인은 바로 교차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좀 시간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체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북한 뉴스는 통일과 같이 우리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남북관계에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 관련 정보에서는 특히 교차 검증을 해야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핵, 미사일 이 다섯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지 나머지 부분은 잘 모릅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북한을 연구한 기록들을 보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3대 지도자의 이미지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조금 이상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확인해보기 힘들지만, 아무튼 3대 세습 지도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21세기에 맞지 않는 지도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3대 세습 지도자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희로애락으로 관심이 많이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한국 사람처럼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퍼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면 기쁩니다. 북한 주민들의 희로애락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가짜뉴스가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지도자에서 북한 주민들의 희로애락으로 관심을 옮기면 그것들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밑거름이 되고 북한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동안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많이 부각시켰다면 앞으로는 여러분 세대, 즉 미래세대는 북한을 바라볼 때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많이 찾아보려 노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북한 뉴스는 확인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반드시 '교차 검증'을 하고요. 북한은 뉴스 하나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민감해요. 그쪽에서는 언론이 선전선동의 도구이지, 비판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여주는 것도 앞으로 북한 뉴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현철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특수성보다 보편성, 차이점보다 공통점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이 참으로 와닿습니다. 또한 교차 검증을 해보고 근거가 미약한 기사에 대해서는 오보나 가짜뉴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온전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화뇌동하지 않아야 하겠군요.

고수석 제가 말씀 드린 세 번째, 이제는 북한 지도자보다는 북한 주민

들의 희로애락에 관심을 많이 갖고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학생들은 조금 전 말씀드린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북한 주민들의 희로애락에 관한 동영상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동영상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언제 될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예측을 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뒤면 지금보다는 북한에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실 분들은 투자할 기회가 오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아니면 좀 더 지나서 보면 지금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큰 장애물인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데올로기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는 시각이 객관적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의식을 가지려면 가보기도 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북한을 바라보는 게 어찌면 우리가 보고 싶은 북한만을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많이 가볼 수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인 거죠. 여러분들도 북한에 한번 가서 교재에서 보는 북한과는 다른 북한의 모습을 직접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육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내가 직접 가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

분들이 그 날을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등을 통해 북한 실상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여현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가계 등 정치지도층의 문제나 핵, 미사일 문제 등과 같은 문제는 일반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은 문제죠. 언론뿐만이 아니라 정보기관 등 모든 기관이 그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밑에 2인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일반인은 일반인 개개인마다 각자의 의견은 다르겠지만 사실 검증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자유민주주의에 개방사회인 한국도 이 정도일진데 북한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잘 이끌어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언론과 우리 학생들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고수석 통일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들이나 우리 교육을 보면 북한과 우리는 굉장히 다르다며 차별적인 부분을 부각시켰죠. 그때는 체제의 우위를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앞으로 미래의 과제, 또는 언론의 과제는 북한과 우리가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부각해야겠습니다. 그래야 통일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차별성

만 부각시키면 자꾸 분열이 돼요.

제가 기자생활을 하며 20년 동안 북한을 가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 느낀 결론이 뭐냐면 단지 사는 체제가 다르고 장소가 달라 거리감이 있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차별성보다는 공통점을 많이 고민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가 미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야겠죠. 그동안 남북 분단이 70년 넘게 지속되면서 많은 불신이 쌓였습니다. 지금 남북한을 조금 말씀드리면 2019년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2018년의 좋았던 교류들이 지금은 중단된 상태죠. 통일에 대한 기대보다 실망이 커지면서 분단의 고착화가 지속될까봐 우려됩니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그 시절이 조금씩 잊혀가고 다시 교류가 없었던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결국 통일 과정에서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는 뉴스가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과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셋째는 갈등에서 협력.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겠지만 실제로 불신으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언급했지만 미국과 북한이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2019년 하노이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2019년도 6월에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70년 동안 쌓인 불신을 없애기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이 더 많이 열려 자주 만나야 70년 쌓인 불신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면 남북이나 북미가 협력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협력구도를 만들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많이 만나야 됩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류와 협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교류는 쉽게 말해서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이 서울에 와서 공연한 것처럼 일회성 아니면 2회성, 짧게는 5회성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이벤트를 말하는 거고요.

협력은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식으로 양쪽에 뭔가 인력이든 돈을 투자해서 양쪽이 이익을 나눠 갖는 것이 협력입니다. 교류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교류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협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사업처럼 남쪽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노동력과 만나듯이 이런 방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협력을 많이 하게 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할 것입

니다. 그런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큼니다. 언론이 지향하는 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공통점을 찾고 통합하고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뉴스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북한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야 어느 국민이나 마찬가지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직접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북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기회가 많은 게 사실 교육적으로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철 하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나 국제정세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교류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고수석 그렇죠. 남북 간에 교류를 할 수 없는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북한 소식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중고 과정에서 배운 지식의 기반 위에 대학교에서도 지식을 쌓는 과정을 통해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교육 현장을 보면 통일 관련이나 북한 관련해서는 초중고에서 배우는 시간이 적고 깊이가 얕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와서 처음 북한을 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북한 이야기들은 언론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통일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기초가 부족해 뉴스로 접할 때

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초중고 과정에서 북한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면 대학생이 되었을 때 특히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북한을 20년 동안 접하고 공부를 하나까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조금 감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접할 때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참고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일교육원의 홈페이지에 가면 그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만 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 접하고 공부를 해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통일과정에서의 언론 역할을 한 번 더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현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말씀에 울림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청중인 우리 학생들에게 적합한 조언일 듯싶어요.

고수석 대학생 되었으면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고민해보고 자기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할 나이입니다. 통일과정이란 그리고 북한 뉴스이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코페르니쿠스, 다윈, 프로이트 이 세 사람을 존경하는데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천 년 동안 믿어왔던 천동설을 뒤엎고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많은 인류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바꿉니다. 다윈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누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윈은 진화론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죠.

그리고 프로이드는 아시겠지만 무의식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나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선택할 때 꼭 이유를 따져서 물건을 고르기도 합니다만 그냥 그 물건이 좋아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의식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죠. 이유를 따지는 것이 이성이고요.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끄집어낸 겁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면을 찾아보고 용기를 내 세상에 알리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다윈, 프로이드를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일 과정에서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언론들이나 기존의 선생님들이 봤던 북한의 모습들도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겠지만 여러분의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배우는 한반도 통일 전략

대담자 김재신

전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제14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였다. 외무부 장관 비서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국장,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2012년부터 3년간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직을 수행했고 2015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대사직을 수행했다.



여현철 오늘은 거의 40년을 외교관으로 근무하시면서 독일 통일의 생생한 현장을 전해주시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재신 전 대사님이십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김재신 안녕하세요? 김재신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대학교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외교관으로 재직하다 퇴직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했고 방금 소개한 대로 주독일 대사를 지냈습니다. 독일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하면



사진 6-1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브란덴부르크 문'에 올라
환호하는 동서독 국민들.
출처: 연합뉴스

서 통일 독일에 대해 체험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찍은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 9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곳이 베를린 장벽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무슨 탑 같은 게 보이지요?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자유의 상징이 된 개선문)이라는 거예요. 이 '브란덴부르크 문' 바로 앞에 베를린을 동서로 분단하는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이 사진은 서베를린 쪽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란덴부르크 문'이 보이죠. '브란덴부르크 문'은 동베를린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브란덴부르크 문'은 독일의 희망성쇠, 분단과 통일을 상징합니다. 문 윗면에 4마리의 말이 평화의 여신이 탄 마차를 끌고 있어요. 오늘 주제가 역사적인 사건이나 국제정치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름이나 용어가 젊은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현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설명 자료를 첨부하거나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의 생생함을 저희 모두가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러니 편하게 평화의 여신, 그 마차 이런 부분에 담긴 의미랄까 역사, 문화적 측면의 상징성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신 독일의 희망성쇠를 상징하는 이 브란덴부르크 문은 1791년 베를린이 아테네와 같이 학문과 예술의 도시임을 나타내기 위해 건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1800년대 초에 유럽의 최강자로 떠오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말로 유명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군이 프랑스에서부터 진격을 해서 러시아까지 공격을 합니다. 1806년에 나폴레옹 군이 베를린을 정복하고 여신이 탄 4두 마차 조각상을 떼어 파리로 가져갑니다.

그때는 독일이 아니고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나폴레옹 시대가 몇 년 후에 끝이 납니다.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연합국이 승리하고, 1815년에 비엔나 협약을 통해서 유럽에 새로운 질서가 구축됩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것을 꼭 찾아야 되겠죠. 1814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이 이 조각상을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하고 그때부터 평화의 여신이 아니라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상징이 베를린 장벽 뒤쪽, 동베를린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동베

를린 사람들이 여기를 넘어와서 장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 1년도 안 된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됩니다. 그래서 금년이 독일이 통일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마 2020년 10월 3일, 독일은 다시 한번 축제의 장을 열겠지요. 통일 30주년을 기념하겠죠. 항상 기념식은 여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베를린을 가면 반드시 가 봐야 하는 곳이 이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메모해두었다가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독일이 통일된 지 30년이 됐는데, 독일이 통일 이후에, 통일 과정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여현철 유럽의 역사가 녹아들어 있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군요. 어려움을 말씀해주셨는데, 독일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특히, 통일비용 문제와 동서독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강대국 중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재신 통일비용도 많이 들었고 동서독 간의 화합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통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통일되고 나서 30년이 지난 오늘날 독일은 유럽의 최강국이 됐습니다. 통일되기 전에도 서독이 강했지만, 통일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국제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훨씬 더 강력한 국가가

된 겁니다.

독일이 통일된 1990년의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1990년 대한민국은 북방외교를 추진하여 소련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북한하고도 관계를 개선해보려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30년 동안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5·1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에게 대중 연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남북한 간에는 3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가 있었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북한의 안보위협은 3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해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한반도 통일은 가능한가

여현철 북핵문제와 더불어 분단이라는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김재신 독일은 통일된 지 30년이 돼서 국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국은 현재 통일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통일문제를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①통일 가능성 예측 ②독일 통일 과정과 동서독 간 통합 노력 ③독일과 한국의 통일 여건 ④한국의 통일을 향한 과제, 이런 순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보
 세요. 구체적으로 ①앞으로 10년 이내에, 머지않은 장래에 통
 일이 될 것 같다. ②10년은 안 될 거고 한 30년, 50년, 여러분
 들 생애에 통일이 될 것 같다. ③마지막으로 통일, 별로 가능성
 이 없을 것 같다. 어떻게 예상하는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10년
 내에 통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30년, 50년, 이때쯤이면
 통일이 될 거 같다? 저 남학생이 손을 들었네요. 다음은 통일
 안 될 것 같다? 지금 봐서 안 될 것 같다(여학생 세 명 거수). 아 그래
 요. 그만큼 남북한 관계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
 일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통일 전에 서독 사람들도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분
 것 같습니다. 1966년부터 10년 주기로 ‘통일이 가능할 것 같으
 나?’ ‘통일이 안 될 것 같으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1966년에는 72%가 안 된다는 겁니다. 1976년 87%, 1986년
 93%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어요. 1986년이라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불과 3년 전입니다. 불과 3년 전인데 통일이 안 될 것
 이라는 응답이 93%였어요.

표 6-1 독일의 통일 가능성 예측 여론 조사 결과

• 1966년부터 10년 주기 여론 조사 결과

연도	1966	1976	1986
비율(%)	72	87	93

•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1989년 11월 서독 청소년들, 통일에 대해 52%가 반대 입장
 출처: Lade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19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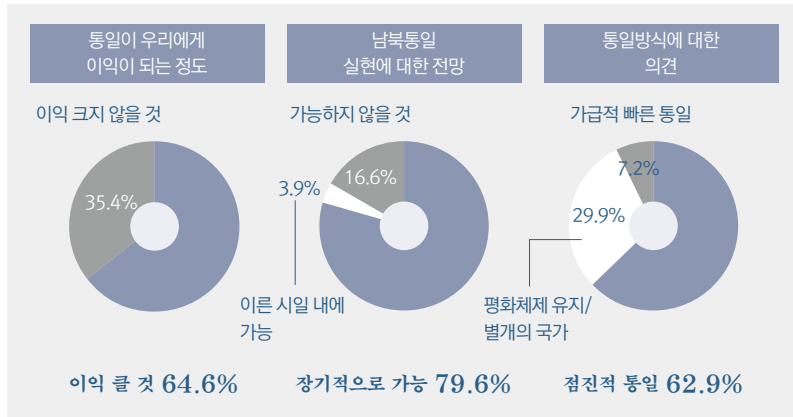
독일 사람도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 한 것입
 니다. 통일 당시에 독일 총리가 콜 총리였어요. 콜 총리는 베를
 린 장벽이 붕괴된 후에도 ‘앞으로 통일되려면 적어도 3~4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통
 일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329일 만에 되었어요.

통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것 같
 습니다. 큰 역사적 흐름이 흘러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작스
 럽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더욱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
 인 1989년 11월 서독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물어보니
 까, 52%가 통일을 반대했대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는데 통일
 되면 안 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통일
 이후에 동독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50%가 넘었
 다 하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우리나
 라는 긍정적인 예측이 많아요. 2년 전(2018년 6월)에 실시했던 문
 화체육관광부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북통일에 대해 ‘장
 기적으로 가능성 있다’가 79.6%, ‘이른 시일 내에 가능성이 있
 다’가 3.9%, ‘가능성 없다’가 16.6%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
 로 가능성 있다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 방식
 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는 게 좋다’가 62.9%였습니다.

통일을 빠른 시일 내에 할 경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
 문에 여건을 갖추면서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고,

그림 6-1 통일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조사(2018년 6월)

빠른 통일을 희망하는 여론은 7.2%에 불과하였습니다. 통일 이익에 대해서는 ‘클 것이다’가 64.6%로 ‘크지 않을 것이다’ 35.4%를 상회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19년에 통일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가 20.1%, ‘약간 필요하다’가 32.9%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났어요. 2018년 같은 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9.8%였어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2018년보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반반이다, 그저 그렇다’가 26.5%,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한국만 살면 좋겠다’는 게 20.5%예요. 이는 2018년 16.1%에서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통일 가능성도 적어지고 통일을 원하는 느낌도 적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

때에는 어떠하였을까요? 거의 100% 가까웠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랐지요.

독일 통일 과정과 동서독 통합 노력

여현철 독일 주민들도 통일이 될 줄 미처 몰랐다는 것이네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국제정치 환경 등 여건이 마련되면 그 호기를 이용해 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되어 참 고무적입니다. 독일과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이 달라서 독일의 사례가 곧 한국의 통일을 바라보는 척도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재신 독일의 분단, 통일, 통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독일이 왜 분단되었어요? 독일은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킨 나라예요. 제1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일으켰고 제2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일으켰어요. 독일은 세계 평화를 두 번이나 깨트린 나라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하고 같은 편이었던 세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세 추축국이라 해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에요. 독일의 히틀러하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같은 동맹을 이루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을 상대로 전쟁을 한 겁니다. 전쟁을 해서 독일이 지게 됐죠. 그래서 1945년 2월에 소련의 알타라는 곳에서 ‘알타 회담’을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 정상들이 '이제 곧 전쟁이 끝나는데 앞으로 독일을 어떻게 할 거냐. 독일은 가만 놔두면 큰일 날 나라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힘을 약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미, 영, 프, 소 4개국들이 독일을 4분할해서 점령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나라는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한을 미국과 소련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신탁통치를 하려고 했죠. 독일도 4개국으로 나뉘어서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은 동서독으로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 의해서 분할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1949년에 독립을 해요. 우리보다 좀 늦었죠? 독립을 하고 나서 초대 총리인 아테나워 총리는 "힘으로 동독을 눌러야 된다"고 해서 힘을 우위로 한 정책을 1949년부터 1963년까지 추진합니다. 이때의 외교정책이 '할슈타인 독트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할슈타인 독트린'은 철저한 반공, 즉 동독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에요.

할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아테나워 총리하의 외무장관이었어요. 이 사람 이름을 따 '할슈타인 독트린'인데, 독일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서독으로, 동독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지요. 우리나라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남한만 단독 선거에 의해서 남한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 '할슈타인 독트린'에 따라 동독을 인정하지 않아서 동서독 간에는 대화가 없고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힘으로

그림 6-2 통일 전 독일 지도



누르려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동독은 소련의 위성국이에요. 한편, 1945년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미소 양국에 의한 냉전시대가 열립니다. 냉전이란 말 들어봤죠? '콜드 워'라고요. 이 과정에서 베를린 봉쇄, 베를린 장벽 구축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베를린이 독일 지도에서 여기 있습니다. 왼쪽이 서독이고, 오른쪽이 동독이에요.

4개국 정상들이 독일 전체 땅을 분할할 당시 독일의 수도가 어디예요? 베를린이예요. 베를린도 분할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베를린의 서쪽 지역을 점령합니다. 베를린은 동독에 둘러싸인 섬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소련이 베를린의 서쪽 지역인 서베를린도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1948년 6월에 섬

같은 베를린을 봉쇄합니다. 섬 같은 데에서 서독으로 향하는 서쪽을 막아버리면 나갈 길이 없겠죠. 주민들은 죽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없는데. 그때 아마 서베를린 주민들이 한 200만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미국과 영국 등이 비행기로 생필품 등을 공수합니다. 11개월 동안 하루에 2,000톤 정도 생필품을 서베를린에 투하합니다. 그 결과 스탈린도 어쩔 수 없이 11개월 만에 베를린 봉쇄를 풀니다.

이 베를린 위기가 1948년도에 미소 대결에 있어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베를린 봉쇄 사건이 끝난 다음에 냉전이 어디서 폭발을 했어요? 한반도에서 폭발합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냉전의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물론 1962년에 쿠바에서 미사일 위기가 발생하여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오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동서독은 베를린 봉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구축합니다. 베를린 장벽은 1961년에 만들어지는데 아테나워 총리 때예요.

여현철 그 당시 생필품 공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련의 베를린 봉쇄정책을 무효화하는 전략적 공수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장벽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요. 베를린 장벽에 얽힌 이야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재신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진 사연은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동서 베를린의 주민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를 했어요. 많은 동베를린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넘어갈 수 있었죠. 몇 백만의 사람이 서쪽으로 넘어가니까 위기감을 느낀 동베를린 당국이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을 시켜서 장벽을 쌓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벽 높이가 3미터 이상으로 꽤 높고 길이가 약 41km(동서독 간 장벽 전체 길이는 총 155km)나 됩니다. 그만큼 동서독 간에는 긴장이 계속 유지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서독 정부는 힘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펼쳤고, 그 이후 아테나워 총리를 이은 같은 기민당의 에르하르트 총리, 키징어 총리 때는 과도기적으로 긴장을 약간 완화시킵니다. 아테나워 총리 시기의 ‘할슈타인 독트린’ 때는 동독하고 수교한 나라, 동독을 인정하는 나라는 서독이 인정을 안 해요. 소련만 예외적이었죠. 동독을 인정한 나라는 동유럽 국가들



사진 6-2
1970년에 폴란드의 유대인 희생자묘
기념비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빌리 브란트 총리.
출처: 연합뉴스

이 대부분입니다. 그 후 에르하르트 총리 시기부터 동유럽 국가와 일부 무역협정도 체결하고 긴장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민당은 지금의 메르켈 총리가 있는 기독교민주당인데, 그 후 최초로 사민당, 즉 사회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사진 6-2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1970년에 폴란드의 유대인 희생자묘 기념비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당시 사민당 출신 빌리 브란트 총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접근을 통한 변화’를 해야 된다, 힘으로만 해서 ‘강 대 강’으로 대치해서는 동독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접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련을 통해서 동독을 변화시키기 위해 ‘접근을 통한 변화’를 시도합니다. 접근을 통한 변화를 하는데 한 번에 큰 변화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작은 스텝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민당의 브란트 총리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하여 1970년에 동독하고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합니다. 동독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상주대표부까지 설치합니다.

여현철 강한 반공정책을 펼치던 정권에서 동방정책이라는 유화책을 펼치는 정권으로 바뀌게 된 것이군요. 사실 동방정책은 통일정책이라기보다는 분단 관리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김재신 그렇습니다. 정책의 기조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당시 야당이던 기민당에서는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초기에는 강하게 비난합니다. ‘접근을 통한 변화’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분단의 고착화’입니다. 동독을 도와주면 동독 사람들이 잘살게 되니까 통일할 생각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분단의 고착화’라는 말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사민당 정권 다음에 다시 기민당의 콜 총리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동방정책의 기조는 1982년 콜 총리 정부 수립 후 통일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콜 총리가 동방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독에 차관도 주고 문화협정도 체결하는 등 동독과의 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에는 동방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현철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1985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라는 젊은 서기장이 등장해 ‘페레스트로이카·글라스노스트’라는 개혁·개방 정책을 취했죠.

김재신 그렇습니다. 1985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라는 젊은 서기장이 등장하여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는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1989년에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폐기됩니다. ‘브

레즈네프 독트린'이란 1968년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가 주장한 것으로서 어떤 사회주의 나라에서 혼란이 생겨 국가 존립이 위협 받게 되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에 공동으로 개입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독트린입니다. 1968년 8월 체코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소련군이 들어가서 진압을 했는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놓은 것입니다.

이 독트린이 폐기됨으로써 이웃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다른 나라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985년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 등장 이후 동유럽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변화하게 되고 민주화운동이 일어납니다. 동독 주민들도 민주화를 요구하는데 동독 공산당에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동독 주민들이 그때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인접국으로 여행을 많이 나갑니다. 그러한 나라들을 통해 수십 만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하려고 합니다. 폴란드나 체코, 헝가리 정부가 이를 허용하여 수십 만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갑니다.

여현철 동독에서 여행자나 여행자를 빙자한 이탈자들이 많이 나와 동독 정부로서는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겠군요.

김재신 맞습니다. 1989년 동독인들의 엑소더스와 함께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요구 시위가 10월 9일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이에 동독 정부도 할 수 없이 시민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기 위해 여행법을 개정하기로 합니다. 11월 9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여행법 개정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귄터 샤보브스키'라는 공보담당 정치국원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 전인 11월 8일에 임명되었고, 더욱이 11월 9일 회의에도 참석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발표를 하라고 하였으니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지요.

“여행법이 개정되어 이제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발표하자 어느 기자가 “여행법 개정이 언제부터 발효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샤보브스키는 잘 모르면서도 “지금 즉시 발효된다”라고 잘못 답변을 합니다. 이 기자회견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었어요. 이를 보고 있던 동베를린 사람은 여행 자유화가 실시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날 저녁 베를린 장벽으로 나갑니다. 수만 명이 베를린 장벽에 모이게 된 것이지요. 장벽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부에 지침을 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자 두려움을 느낀 군인들이 도망가버려요. 사람들이 장벽을 타고 서쪽으로 넘어가고 그 소식을 들은 서베를린 쪽 사람들이 또 몰려나와서 결국 장벽이 무너집니다.

여현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이전의 여러 정책들과 기반 다지기가 있어서 된 일이겠지만 결국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한 것은 그 공보담당 정치국원의 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재신 쿤터 사보브스키의 기자 브리핑은 원래 그날은 여행법 개정 방침만을 발표하고 세부 사항은 추후 행정적인 절차를 취한 후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법을 개정할 거라는 것까지만 발표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실수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실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실수가 없었으면 그날 베를린 장벽도 안 무너졌을 거고 그랬으면 독일의 통일은 훨씬 뒤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한 사람의 실수가 엄청난 일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수가 독일 국민들에게는 축복이 된 겁니다.

고르바초프는 1985년에 소련을 개혁,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각하지만 이 개혁·개방 정책의 영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련이 붕괴됩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이 자유화되고 소련이 여러 나라로 쪼개져서 러시아로 되는 겁니다. 자기는 실패해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콜 총리는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뉴스가 들

어오는 거예요. 총리실에서 지금 베를린에 큰일이 났다고 연락이 온 거죠. 이때 서독의 수도는 '베를린'이 아니고 '본'이었어요. 그래서 콜 총리가 폴란드 방문을 중단하고 다음 날 급거 귀국합니다. 그런데 독일 분단 시 전승 4개국 간 합의에 의해 서독 총리가 비행기를 타고 직접 베를린으로 갈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독의 함부르크로 가서 거기서 미군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들어갑니다.

콜 총리는 우선 통일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독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마침내 11월 28일 독일 통일을 위한 '10개 항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10개 항 프로그램은 '계약 공동체, 국가 연합, 연방국가'의 3단계 통일방안으로서 콜 총리는 당시 앞으로 통일까지 적어도 3~4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동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여현철 이러한 대 사변이 미리 준비되어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4년으로 잡은 계획을 제시한 것은 본받아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당시의 그 혼란상에서도 저희가 배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김재신 사실 콜 총리의 자서전에는 3년 내지 4년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콜 총리의 외교보좌관이었던 텔치 박사에 따르면 콜 총리가 5년 내지 10년 정도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통일을 이루기까지는 그만큼 어렵다고 본 것이겠지요. 그리고 당시 콜 총리는

의도적으로 '통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독일이 강해지는 것을 유럽 다른 나라들이 다 불안해하고, 통일 독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추구한다 하면 영국이나 프랑스가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이란 말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합니다. 단계적 10개항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12월 19일 베를린에서 가까운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동독 총리 모드로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콜 총리는 동독 총리와 통일방안을 협의하고 '프라우엔' 성당 앞에서 동독 주민을 상대로 계획에 없던 연설을 합니다. 그때 동독 주민들의 열광적인 환영과 반응을 보고 콜 총리가 통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레스덴 정상회담이 통일을 앞당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1990년 3월 18일에 동독이 자유총선을 실시합니다. 동독에서 자유총선을 할 때 이미 공산당은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조기 통일을 주장하는 기민당이 승리합니다. 이는 서독의 기민당이 아니라 동독의 기민당입니다. 이로 인해 동독에서도 조기 통일을 주장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국내적으로는 동서독 간에는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국제적인 여건입니다. 전범국가인 독일이 현상을 변경시키려면 4개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즉, 통일을 하려면 4개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서독의 총리가 동독에 가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법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콜 총리와 겐서 외무

장관이 만들어낸 포맷이 '2+4회담'이라는 겁니다. 동서독 간에 합의를 먼저 하고 4개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4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입니다. 1990년 독일 통일을 위해 4개국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2+4 포맷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주 거론되는 방안입니다. 남북한 간에 합의하고 주변 4개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지지를 받아야 우리도 통일이 원만하게 이뤄지니까요.

여현철 우리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분명 주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주변의 국가들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이기에 우리도 그러한 문제를 미리 준비하고 또한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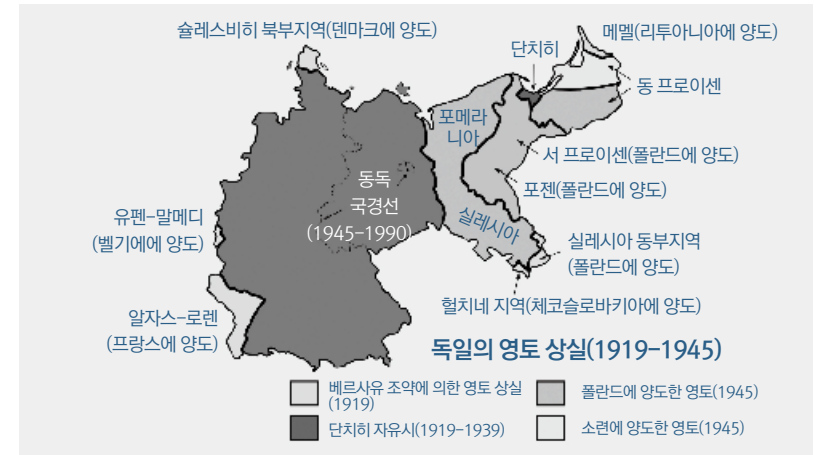
김재신 우리도 '2+4 회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원래 독일이 자유진영에 속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사실 소련의 스탈린은 1953년에 독일의 통일을 제의합니다. '오스트리아하고 스위스처럼 중립국가가 되면' 통일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1953년에 스탈린의 의도는 그랬습니다. 독일이 중립국이 되면 중부 유럽에서 힘의 공백상태가 생기는데 소련이 그것을 채우겠다는 의도였지요. 독일을 돕기 위해서 중립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테나워 총리는 이 제의를 단연코 거부합니다. 오히려 미국 등 친 서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갑니다.

이때 서독이 NATO에 가입해요. 북대서양조약기구인 NATO는 북대서양 나라들의 공동 안보기구입니다. 소련은 서독이 NATO에서 탈퇴하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NATO 잔류를 허용받기 위해서 콜 총리가 고르바초프 서기장한테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고향 집에도 찾아가고, 또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서독이 소련에게 50억 마르크의 경제 원조를 해줍니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게 다 영향을 미쳐 결국 러시아가 독일의 NATO 잔류를 허용합니다.

독일의 NATO 잔류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독일 통일을 반대하는 큰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콜 총리는 독일의 NATO 잔류와 함께 통일 독일을 '유럽통합'의 테두리 속에서 추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더라도 EU라는 유럽통합의 틀 내에 독일이 계속 남아 있겠다, 다시는 평화를 파괴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과 영국 대처 총리를 설득해나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두 정상의 승인을 받습니다.

독일은 과거에 전쟁을 많이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림 6-3의 지도 전체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영토이고, 파란 부분이 현재의 독일 영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오른쪽의 독일 영토 4분의 1이 떨어져 나갑니다. 지도에서와 같이 폴란드,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등에게 영토 일부가 할양됩니다. 현재 독일과 폴란드 간에 '오데르-나이세'라는 강이 있어요. 통일

그림 6-3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독일 영토



전 동독과 폴란드 간의 경계선이기도 하지요. 이와 같이 상실한 국토가 전쟁 전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통일 당시 현재의 국경선을 재확인함으로써 국토의 4분의 1을 영구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현철 그 넓은 땅을 통일의 대가, 자세히 말하자면 통일을 위해 주변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포기한 것이군요.

김재신 그렇습니다. 제가 독일대사로 근무할 때 독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백이면 백 사람 모두 이 땅은 포기한 것이라고 답했어요, 독일이 이 땅을 되찾으려는 순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 땅을 포기해요. 이러한 조치 등을 통해 폴란드, 헝가리 등 주변국을 안심시키고 동서독이 통일 조약을

체결해서 10월 3일 결국 동서독이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서독은 통일되고 나면 만들겠다고 해서 헌법이 없었어요. 헌법 대신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기본법에 통일에 관한 조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23조로 '독일의 나머지 부분을 서독에 편입하는 형태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146조로서 동서독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대등하게 통일하는 겁니다. 조금 전 동독 선거에서 기민당이 이겼다고 하였죠? 기민당은 23조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는 당이에요. 23조에 의한 통일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다른 쪽으로 편입만 되면 되니까. 아니면 둘이 대등한 관계에서 통일을 교섭하기 시작하면 어렵겠지요. 그래서 23조에 의한 통일을 합니다. 이제 통일이 완성되었습니다.

통일 후 동서독 간에 통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동서독 정부는 통일 이전부터 통일을 전제로 해서 통합 노력을 합니다. 동독이 체제를 바꾸고 사회경제적으로 통합을 해 나갑니다. 독재체제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동서독 마르크화가 1대 1로 교환됩니다. 실제 가치는 1대 4보다도 더 높은데 1대 1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서독에서는 많은 반대가 있었죠. 그러나 만약 이런 조치 없이 통일이 되어서 국경이 개방되었다면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물밀 듯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 화폐 교환을 임금이나 연금은 1대 1로 교환해주고, 채권이나 채무는 1대 2, 이것도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연령과

금액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환전해줍니다. 따라서 서독의 엄청난 돈이 동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 동독 정부에서 침해된 재산권에 대해 원소유주 반환 원칙을 정합니다. 이로써 서독 사람들, 또는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동독 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칙적으로 반환해 주게 됩니다. 물론 예외도 많이 있지만...

여현철 화폐교환 등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되 그 부작용과 장점을 모두 보아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미리 만들어두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북한의 화폐가치와 한국의 화폐가치의 차이는 동서독의 그것과는 또 다른 규모이니까요.

김재신 지금 우리 국민 중 북한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땅 등 부동산이요. 그래서 이런 독일의 통합과정은 우리의 통합에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통일부와 독일 정부 간에 통일정책 협의를 합니다. 매년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통일부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서독의 연방 노동법, 사회법, 교육 관련 제도 등이 그대로 동독에 적용됩니다. 통일 이후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치 행정을 위해 수도를 본에서 전전(戰前)의 베를린으로 이전합니다. 원래 수도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동독의 행정구역을 분단 이전의 5개 주 정부로 전환하여 경제적 통합을 합니다.

통일비용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약 2조 유로에

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러분 2조 유로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1유로를 약 1,350원으로 가정하면 원화로 2,700조 원 정도일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통일비용으로 들어갑니다(출처: 신동진, 통일비용에 대한 기준연구 검토, 국회예산정책처, p.13.). 통일되었을 때 동독 지역의 경제력이 서독 지역의 4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75% 수준으로 향상됩니다.

여현철 그래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투자였지요? 당장에 동독의 경제력이 향상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경제격차는 결국 주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김재신 물론이지요. 동독 지역의 월 평균소득이 2018년에 서독 지역의 85%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독 지역의 실업률도 2018년에는 통일 초인 1991년 서독 지역 실업률 6.2%와 비슷한 6.5%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만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구 동독 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1991년 서독 지역의 43%에서 2016년에는 73%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구 동독 지역은

표 6-2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지역 1인당 국내총생산 비교

연도	구 서독 지역	구 동독 지역	비율
1991	22,687유로	9,701유로	43%
2016	40,310유로	29,477유로	73%

• 구 동독지역 26년간 GDP 3배, 서독 지역 1.77배 증가

26년간 GDP가 3배 증가하는데, 서독은 1.7배 증가했어요. 동독이 훨씬 경제적인 혜택이 많았던 것이죠(출처: 독일 경제에너지부 산하 신연방주 특임관실 발간, '독일 통일 현황에 관한 연방정부 연례보고서').

그럼 통일 후에 여타 동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경제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2008년도 통계로 좀 오래됐습니다만, 구 동독 지역은 30,000달러가 넘는데 체코는 17,000달러, 폴란드는 11,000달러로 구 동독 지역이 훨씬 높습니다(출처: 김영윤·양현모,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통일부, p.332.).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인 통합입니다. 주민 간의 통합입니다. 처음에는 동서독 주민 간의 알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을 '오씨(Ossi)'라고 부르는데 차별적인 용어입니다. '게으른 동독 놈들'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또 동독 사람은 서독 사람을 '베씨(Wessi)'라고 부르는데, '거만한 서독 놈들'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이런 반목이 꽤 있었고, 지금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현철 주민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경제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다시 한 번 느낍니다. 그러나 혹시 최근까지도 그러한 지역이랄까 출신에 대한 차별이나 갈등이 존재할까요?

김재신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대사관에 동독 출신 직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서독 출신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영호남보다도 차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진보잡지 중



사진 6-3
독일대사 시절 신임장을 전달한
요하임 가욱 전임 독일 대통령



사진 6-4
서독 출신의 메르켈 총리

에 <슈피겔>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2013년 8월에 ‘오씨^{Ossis}와
의 이별’이라는 기사를 통해 동독과 서독간의 내적 통합이 진
전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어요.

첫째, 지금 독일에는 동독 출신 총리와 동독 출신 대통령이 있
다는 겁니다.

왼쪽 사진이 동독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제가 대사로서 신임장
을 전달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요하임 가욱 전임 대통령인데,
이분이 통일 독일의 대통령으로 동독의 목사 출신입니다. 오른
쪽 사진이 메르켈 총리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서독의 함부르크
출신입니다. 메르켈 총리 아버지가 진보적인 개척 교회 목사입
니다. 동독에 선교하기 위해 갓난아기였던 메르켈을 데리고 동
독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독에서 컸어요. 대학교도 동독에서 다
니고요. 동독 출신의 총리가 된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한국이 통일을 했는데 북한 출신의 대통령을 우
리가 뽑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독일은
그 정도로 동서독 간의 통합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 동독 지역 관련 문제가 더 이상 정치 이슈화되지 못합
니다. 구 동독 지역이라고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될 이유가 없게
된 것이지요. 셋째, 동독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지원도 다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넷째, 출신지가 구 동독 지역인지 여부에 관
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통합이 잘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지만,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
회과학센터가 통일 23주년인 2013년 구 동독 지역 주민을 대
상으로 ‘통일 이후 삶의 만족도’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
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8%로 ‘불만족’ 12%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서독 간 차이가 여전히 크
다’는 반응이 51%로 나타났지만, 통일 후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그만큼 통일 이후 동서독 간 통
합 노력이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통일 여건과 우리의 과제

여현철 한국도 어서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에서는 통일 이전에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존재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김재신 이와 관련하여 독일과 한국의 통일여건을 비교해봅시다. 동서독은 분단 후에도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교류와 왕래를 해왔습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 분단 후 남북한 간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요?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남북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어요. 정부 간의 경쟁, 대립뿐만 아니라 주민 간의 두려움, 미움, 적개심 등을 갖게 했어요. 독일은 45년 만에 통일이 됐어요. 우리는 분단 7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5년 후인 2045년이 되면 분단 100년이 됩니다. 분단이 장기화되는 건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동독인들은 서독에 대해서 동경심 내지는 호의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그 가장 큰 요인은 동서독 간에 문화 협정이 체결되어 교류가 이루어지고, 특히 대부분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서독에 대한 동경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표 6-3 독일과 한국의 통일 여건 비교

	독일	한국
동서독/ 남북한 관계	제한된 범위 내 교류, 협력	6·25 전쟁과 분단의 장기화
	동독인의 서독에 대한 동경심 내지 호의적 인식	남북 간 적대감 또는 경계심
	서독 대비 동독 인구 1/4, 면적 44%	한국 대비 북한 인구 1/2, 면적 1.2배
국제적 환경	전쟁 책임에 따른 국제법적 제약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전승국과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심	주변 4강 간 경쟁과 대립

런데 우리는 남북 간에 적대감과 경계심만 있는 겁니다. 지금은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도 많이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이 우리 TV 드라마를 CD에 담아서 본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동경심,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됨으로써 주민 간의 호기심, 친근감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여현철 북한에도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예능 등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리고 있습니다.

김재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서독이 동독보다 인구가 4배 많았고 면적도 넓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인구는 한국이 2배 많습시다만, 면적은 북한이 우리보다 1.2배 넓어요. 북한은 120,000km², 한국은 100,000km²,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통일 이후에 사회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독일이 우리보다 여건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여현철 남북의 인구 차는 한국이 2배 이상 우월하지만 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대사님 말씀대로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유리한 점은 없나요?

김재신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에 있어서 독일은 전쟁 책임에 따른

국제법적 제약이 있었지만 우리에게서 그런 제약이 없는 것은 매우 유리한 점이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골치 아픈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 안보위협입니다. 동독에게 핵 문제는 없었어요. 북한 핵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 그리고 국제문제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전 송국과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심, 우리에게서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간의 경쟁과 대립관계가 문제입니다.

여현철 국제법적 제약은 없지만 구조적인, 국제정치 환경적 문제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으며, 오히려 독일의 상황보다 심각할 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사님, 독일의 분단과 통일 과정이 한국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김재신 첫째, 독일 통일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었던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평화통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막강한 국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독의 막강한 국력이 없었으면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한 꾸준한 교류협력 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셋째, 전 방위적인 외교노력을 통해서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이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가 갑자기 왔습니다. 갑자기 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들의 통일 열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독일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현철 이러한 시사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 우리의 과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재신 제가 독일에서 근무할 때 독일의 통일 전문가들이 저에게 “한국의 통일이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독은 북한보다 훨씬 나았고 3대 세습, 핵 개발 등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통일 환경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강하고 안정된 국가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통일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권교체와 관계없이요. 서독은 여야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도 동방정책, 신동방정책 등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셋째,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흔히 통일비용을 얘기하는데 분단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통일비용은 물리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통일 후 비용이 들어가서 북한이 발전하면 결국 시너지 효과로 통일 한국이 발전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 경제

는 이미 포화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는 8천만 가까운 인구에 국토가 22만km²가 넘고 경제적으로 훨씬 탄력을 받는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군대를 가야 하는 것도 분단비용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도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들, 북한과 전쟁이 일어난다, 북한이 핵을 쏜다,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경기도 북쪽은 개발도 제한된 지역이 있어요. 경제적인 제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비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민적 힘을 집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꾸준한 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북한 주민의 적대감과 불안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통일이 외형적으로는 서독의 흡수 통일이지만, 동서독인들의 평화로운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떤 의미에서 통일에 앞서 우리나라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을 하지 못하면 통일을 하겠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가장 어려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외교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통일 한국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공식적으로는 모두 통일 한국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마음도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일 한국이 분단된 한국보다 자국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지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외교가 중요합니다.

여현철 우리 국력을 강하게 하고 일관된 통일정책을 펼치며, 분단비용에 대한 인식,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외교문제를 잘 풀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있으신가요?

김재신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첫째, 통일은 반드시 된다, 둘째,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기회는 갑작스럽게 온다, 셋째, 갑작스럽게 온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외교관 시험을 볼 때 3차 면접시험에서 면접관이 “왜 외교관이 되고 싶어 하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 저는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는데 통일을 하려면 외교를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외교관을 희망했다”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생각해보니 제가 남북관계 발전이나 통일을 위해 별로 기여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 세

대에는 통일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20대 초반이지요? 요즘은 백세인생이라니까 앞으로 80년을 산다고 해봅시다. 앞으로 80년까지 한국이 통일이 안 된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분단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여기에 익숙해지고 당연시할 우려가 큼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에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통일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특강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특강

6인의 전문가가 들려주는 평화·통일의 이해

발행일 | 2020년 11월 26일

지은이 | 한완상, 장달중, 김주현, 전현준, 고수석, 김재신

펴낸곳 | 통일교육원

담당자 | 이정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전화 | 02-9017-116

기획 | 통일교육원

편집 및 제작 | (주)메디치미디어

©통일교육원, 2020

※이 책자는 통일교육원이 국민대학교와 함께 진행한 2020년 1학기 <유니버스 특강> 내용을

글로 묶어 출간한 것으로, 통일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의 무단전제·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사용하려면 반드시 통일교육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